

코스피	코스닥
2567.45	855.46
(-0.10)	(-3.70)
금리	환율
3.378	1317.40
(+0.005)	(+4.70)

‘5G 과장광고’ 이통3사에 과징금 336억 03



동물권 인식 개선에도 학대 여전 미미한 처벌, 5년간 구속 4명 뿐

공존 사회, 이제는 동물권

〈上〉 반려동물

한국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면서 최근 ‘동물권’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동물권은 ‘그 자체로 존중받고, 학대받거나 착취당하거나 버려지지 않을 권리’, ‘생존 위협을 받지 않고 본래의 습성과 수명에 따라 살아갈 권리’라고 유네스코 세계동물 권리선언은 정의하고 있다. 동물 학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 보호’ 강화 차원의 동물보호법 개정도 이뤄졌다. 다만 축산·도축 관련 농장 동물, 실험동물 보호 등 문제는 여전하다. 메트로경제는 반려동물, 농장 동물, 실험동물 등 ‘동물권’ 정립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전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동물이 갖는 권리, 즉 동물권에 대한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반려동물 학대를 계기로 시작했다. 그동안 동물의 생명 보호 필요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있었으나, ‘동물권’은 비교적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인식한 개념이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이 지난 2022년 3월 25~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동물권’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동물보호법위반’ 사건 접수·처분 현황〉

(단위: 명)

구분	사건접수(신수)	처분계	처분				
			구속	불구속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17년	526	509	0	18	183	260	48
2018년	613	601	1	10	176	345	69
2019년	1,070	1,070	1	29	320	538	182
2020년	1,125	1,110	0	30	325	540	215
2021년	748	779	2	26	316	241	194
2022년(1~3월)	167	152	0	5	52	41	54
총계	4,249	4,221	4	118	1,372	1,965	762
%	-	100	0.1	2.8	32.5	46.6	18.1

동물 생명보호 관심 높아져 물리적·사육장 학대 금지 등 동물보호법 개정 규정 강화

학대범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불기소·약식명령 처분에 그쳐

33%가 ‘동물권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55%)은 동물권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는 개념이라고 답했다. 동물권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응답은 16%였다.

다만 동물권 개념에 대해 설명한 뒤 다시 질문했을 때 답변은 달랐다. 응답자의 79%가 ‘동물에게도 기본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3월 얼룩말 ‘세로’의 동물원 탈출 이후 동물을 가두는 방식의 환경 개선 요구와 맞닿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2022년 9월 13~26일 전국 거주 20~64세 국민 5000명에게 온라인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조사 내용 가운데 ‘동물 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와 관련된 물리적 학대 행위(92.3%)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공중 설치 사육장, 좁고 어두운 공간 사육, 음식물쓰레기 급여 등)이라고 꼽은 답변은 절반 이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4월 15일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만나 “한국과 프랑스가 동물권 진전을 위해 정책 교류를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한 점 역시 동물권에 대한 한국 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대목으로 인식된다.

〈2면에 계속〉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현대자동차의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위)와 BMW 수소연료전지차 iX5 하이드록센.

갈긴 먼 수소 모빌리티 대중화 성장 가능성에 투자·개발 지속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글로벌 화두가 된 가운데 에너지 중 ‘수소’를 활용한 모빌리티 개발·시스템·인프라 구축이 여전히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목록에 올라가 있다. 매년 큰 성장률을 보이는 전기 모빌리티 시장이 대체를 이끌고 있지만, ‘수소 모빌리티’ 개발을 포기하지 않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돋보인다.

◆ 포기 못하는 ‘수소’

수소는 전기보다 먼저 탄소중립을 향한 에너지원으로 각광받았다. 하지만 충전 인프라 부족, 운송수단에 적용할 시 운영 항속거리가 짧은 이유 등으로 전기차 개발에 비해 현격히 대중과 업계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전기차가 ‘친환경’의 표준처럼 여겨지고 있고 이른바 ‘진입장벽’이 수소보다 높지 않다는 인식도 기업들의 투자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수익성 경쟁까지 붙어 수소 개발 영역에서 멀어지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

반대로 수소는 개발부터 상용화하기까지 장벽이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현대차, 도요타, 혼다, BMW 등이 수소 모빌리티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능성’과 ‘미래 기술 선점’ 때문이다. 수소의 생산방식 자체에서 수소를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업계에서 끊임없이 논쟁을 거치고 있지만, ‘수소’ 개발 자체는 기업들의 관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당장은 전기차나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수단만큼의 사업성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소 시스템이 갖춰지면 수소 모빌리티의 시장 성장도 마냥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일본의 도요타는 모토 스포츠 경기이자 참가 차량의 성능과 내구

성을 두루 보는 ‘내구레이스’에 수소를 연료로 달리는 내연차를 내놓는 등 수소엔진 모델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멈추지 않고 있다.

도요타는 수소차 관련 테크스포팀을 구축하고 수소차의 출력과 토크 향상, 항속거리 연장 등 다각도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일본 시즈오카현 후지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24시간 내구레이스’에 도요타의 액체 수소 엔진 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 대비 수소차 시장성 제로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장벽 높아

현대차·도요타 등 완성차기업들 미래기술 선점 위해 끝없이 도전

BMW의 경우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일찍이 수소차 개발에 뛰어든 기업이다. 2007년에는 7시리즈 기반의 12기통 수소차 ‘하이드록센7’의 시승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워르겐 굴트너 BMW 그룹 수소 기술 및 차량 프로젝트 총괄 박사가 “수소 승용차 양산 모델을 2020년대 후반에 출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여전히 수소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BMW는 자사의 ‘iX5 하이드록센’ 모델에 ▲6kg 수소탱크 ▲BMW가 자체 개발한 배터리 ▲연료전지 스택 등을 장착해 지난해 12월부터 소규모 시범 생산 중이다.

이밖에 혼다는 지난 2월 제너럴모터스(GM)와 공동 개발 중인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2024년 출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매진하고 있다. 〈3면에 계속〉

/허정윤 기자 zelkova@

‘불법’ 전력 단체·출퇴근시간 집회 못한다

정부 차원 집회 종합대책 검토 야간집회 금지, 소음기준 강화 등 야당과 ‘집시법’ 개정 협의 할 것

당정이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를 제한하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도로 시위 신고를 제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은 내놨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집회라든지 여러 도심 집회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많이 일어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건설노조의 이번 집회와 관련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수

사해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좀 대응해야겠다고 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 위협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를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16~17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6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국힘 “전주영화제, 내놓고 文 헌정영화 지원… 文 당시 현직”
▲박진 “우크라이나 10조원 지원’은 오보… 해명 요구”
/사진 뉴시스

▲ ‘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통과 내일 본회의 처리 예정
▲한미 북핵차석대표 미국서 협의… ‘北 도발 시 단호 대응’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이르면 이번 주 재가
/사진 뉴시스
▲국민의힘, 소액생계비대출 한도 100→200만원 상향 추진

‘통신이상’ 누리호 발사 연기… 오늘 재검토 후 재개 결정

항우연, 문제 발생에 관리위 개최
선례로 볼때 큰 우려사항 아닌 듯
韓 연구진들, 문제 보완능력 갖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3차 발사 2시간여를 앞두고 연기됐다. 누리호 저온 헬륨 공급 제어 과정에서 시스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4시10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초 이날 오후 6시 24분으로 예정돼 있었던 누리호 3차 발사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이날 누리호 발사준비 과정 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즉시 ‘발사관리위원회’를 개최했다.

고정환 한국형발사체고도화단장은 “12시 24분 발사체 내부의 구성품 추진기 내부 이상이 발견됐다”며 “발사 제어 컴퓨터와 설비를 제어하는 컴퓨터 간의 통신 이상이 발견됐다. 자동으로 발사 절차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누리호 3차 발사 일정 조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 발사 절차를 취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누리호는 기립된 채 다시 점검에 들어간다.

고 단장은 “이 문제가 오늘 안에 해결된다면 내일 발사를 시도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내일 누리호 발사가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누리호는 23일 발사체조립동에서 제

2 발사대로 이동, 기립 및 고정 작업을 모두 마친 뒤 발사체 기능점검 절차를 진행했다. 이때까지 이 같은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24일 오후부터 항우연 기술진은 다음 날인 25일 오전까지 누리호에 대한 시스템 분석 등 점검 절차에 들어간다. 점검 결과에 따라 25일 발사관리위원회를 다시 열고 발사 가능 여부 재검토에 나

선다.

누리호 3차 발사 예비일은 25일부터 31일까지다. 현재 발생한 기술적인 문제를 따져볼 때 누리호는 25일 발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

25일 발사가 재개된다면 발사 시각은 24일 원래 예정됐었던 오후 6시 24분과 동일한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태석 차관은 “25일 발사 진행 가능 여부는 문제 해결 여부 파악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해 발사관리위를 통해 발사 가능 여부를 재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을 탑재·발사하는 발사체 본연의 역할을 최초로 수행하게 된다. 누리호에는 차세대 소형위성 2호(1기)와 큐브위성(7기)이 실려있다. 차세대 소형위성 2호는 KAIST 인공위성연구소가 개발을 주관했고, 큐브위성 7기는 저스텍, 루미르, 카이로스페이스,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개발을 맡았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가 연기된 데 대해 미국 등 우주강국의 수많은 실패사

례를 떠올려보면 큰 우려사항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 연구진이 누리호 발사 후 폭발이나 미점화 등 심각한 사태로 가기 전에 문제를 찾아 이를 보완할 능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스페이스X도 올해 들어 스타십 로켓이 단 분리에 실패하기도 했으며, 러시아도 2021년 안가라A5의 세번째 발사를 부분 실패하기도 했다. 또 일본은 올해 쏘아올린 H3가 첫 발사에서 1단 엔진이, 두번째 발사에서는 2단 엔진이 점화되지 않는 문제를 일으켰다.

항우연 관계자는 “해외 우주발사체도 첫 발사가 성공한 이후 반복발사에서 실패한 사례가 많았다”며 “성공·실패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기술과 경험 축적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누리호의 3차 발사가 연기된 24일 오후 발사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전남 고흥군 동일면 봉영리를 찾은 시민들은 아쉬워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美中 갈등에... 싱가포르, 반도체 수출 ‘어부지리’

중국, 싱가포르 반도체 장비 수입액
지난달 5400억 규모, 전월비 10% ↑
반도체 허브 도약 발판 계기될 수도



싱가포르 마리나샌즈 베이. 중국은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4억700만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해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화·뉴시스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싱가포르가 수혜국으로 떠올랐다. 중국으로 반도체 관련 수출이 늘면서다. 싱가포르 입장에서 보면 이를 기회로 한국, 대만과 같은 반도체 허브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다.

24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서 4억700만달러(한화 약 54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입했다. 전월 대비 10% 가량 늘면서 작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전체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7% 급감한 것과 정반대다.

싱가포르에서의 집적 회로 칩 수입량도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반면 아시아의 주요 공급업체들은 모두 중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줄었다.

싱가포르를 표적 관리에 나섰다.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라기 보다는 그간 소외되었던 부분에서 제대로 된 평가

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싱가포르 베스완진 경제개발청장은 “싱가포르는 반도체 조립 및 집적회로 설계 분야에서 (다른 나라의 주요 공급업체와 같이) 공정한 비중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과 대만 등이 반도체 제조 중심지로 각광을 받

고 있지만 지리적 다양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싱가포르는 항상 미국과 중국 모두와 교류할 것을 희망했다”며 “두 경제 대국 간의 대화를 촉진해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회복을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공급망 다변화에 나선 상황이다.

대만 TSMC는 세계혜택과 보조금 등을 이유로 싱가포르에 실리콘웨이퍼 설비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세계 최대 반도체 장비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미 싱가포르에서 관련 장비를 생산하고 있고, 소이텍과 글로벌파운드리,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등도 진출해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네덜란드 ASML의 공급업체들도 중국 대신 동남아에 공장을 짓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안성미 기자 smahn1@

반도체 등 실적개선 기대 기업체감경기 소폭 상승

한은, 5월 BSI 4p 오른 76 기록
제조업 업황 BIS 3p 상승한 73

이달 들어 우리나라 기업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등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영상통신장비 등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감과 대면활동 재개로 인한 소비가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 업황 BSI는 전월대비 4포인트(p) 상승한 76을 기록했다. BSI는 기업의 경기인식을 조사한 지표로 100을 웃돌면 업황이 좋다고 응답한 기업이, 100을 밑돌면 업황이 나쁘다고 답한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황희진 경제통계국 통계조사팀 팀장은 “이번 BSI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영상통신장비 등의 실적회복 기대감이 반영됐다”며 “이전 실적이 워낙 낮았고, 잔고도 양호한 편이라 납품실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적도 안정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제조업 업황 BIS는 전월대비 3p 상승한 73으로 집계됐다. 전자·영상·통신 장비가 12p 오르고, 기타기계·장비가 9p, 1차금속이 7p 상승했다. 반도체 제조장비 업체가 양호하게 납품실적을 내고 있고, 전방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원활하게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71)은 전월대비 3p, 중소기업(75)은 2p 상승했다. 기업형태별로 보면 수출기업(70)은 6p 상승한 반면 내수기업(74)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려동물 병원비 월평균 6만원... 2년만에 40% 급증

◆여전히 심각한 동물 학대... 처벌 기준 강화로 대응

동물권에 대한 개념을 한국 사회가 인식하게 된 계기인 ‘반려동물 학대’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건전한 반려 문화 조성’을 담았고,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반려동물 관련 규정도 강화했다.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서 반려동물 관련 조항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영양사 규정 강화(반려동물 수입·판매, 장모양의 허

가제 전환,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보호자 의무 강화(외출 시 목줄·가슴줄 착용, 잠금 가능한 이동장치 사용 등) 이 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 학대’ 범위도 강화했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동물을 오랜 기간 기르지 않도록 했고,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경우 정기적인 상태 관찰도 하도록 규정했다. 동물 학대 금지 조항도 확대했다.

다만, 이런 관심과 별개로 반려동물 학대와 같은 범죄는 여전히, 처벌 또한 미흡한 게 현실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2년 8월 법무부와 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2년 3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은 전체 422명 가운데 단 4명에 불과했다. 대다수 사건은 불기소(46.6%), 약식명령(32.5%) 처분을 받았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2.9%(122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정식 재판에서 실형받은 경우는 5년간 19명(5.5%)에 불과하다. 절반 이상의 피고인은 벌금형(56.9%), 벌금형 집행유예(3.2%)라는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한편, 한국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빠르게 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문제도 화두로 떠올랐다. 농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평균 병원비는 6만900원이다. 이는 2021년(4만2500원)과 비교하면 40% 넘게 오른 수치다. 월평균 양육비(15만원)와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에 정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 항목 진료비와 수술 등 중대 진료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수의사법 개정으로 시행하는 제도는 그간 ‘깜깜이 가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나유리 기자 yu115@

5G 과장광고 논란

“LTE 20배 속도 거짓”... 공정위, 이통3사 과징금 336억

‘20Gbps’ 소비자 이용불가 판단 근거없이 자사 속도 우위 선전 “실제 속도 0.8Gbps... 허위·과장”

이동통신 3사의 5G 서비스 속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거짓 광고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역대 표시광고 사건 중 두 번째로 큰 33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5G의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고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SK텔레콤, KT, 엘지유플러스(이하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는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고했다.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3일을 전후로 집중적으로 이 같은 광고를 냈다. 광고를 통해 ‘최고속도 20Gbps’,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5G 속도도 SK텔레콤이 앞서갑니다’, ‘전국에서 앞서가는 KT 5G 속도’, ‘5G 속도 측정 1위! 유플러스가 5G 속도에서도 앞서갑니다’라고 했고, 공정위는 이를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봤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 광고가 전달한 인상,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

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며 “자사 소속 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5G 기술표

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했지만, 자신의 5G 서비스의 속도가 실제 20Gbps라는 점을 전혀 실증하진 못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이동통신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 및 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했고, 28GHz 고주파 대역을 지원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비중도 출시된 적이 없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성이 큰 이동통신 시장에서 통신 기술세대 전환 시마다 반복되어온 부당광고 관행을 근절했다는 점, 통신 서비스의 핵심 성능지

표인 속도에 관한 광고의 위법성을 최초로 인정한 사례로 표시광고 사건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같은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측은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의결서 수령후 세부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이통3사 “이론상 속도 설명한 것... 장점 강조 취지”

공정위 판단에 아쉬움 토로 “의결서 수령하는 대로 대응”

이통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5G 속도 부당 광고 제재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롭게 선보인 5G를 알리기 위해 장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이통3사는 5G 서비스 속도 거짓과장, 기만적인 광고, 각사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3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판단에 이통3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새로운 기술

이 상용화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특장점을 조금 더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극대화해 표현하려던 취지였다는 것이다. 20Gbps의 경우 전국망으로 사용하는 3.5㎐가 아닌 이통3사 모두 할당이 취소된 28㎐가 상용화된 것을 가정했을 때의 이론상 최대 속도다. 상용화 초기만 해도 28㎐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좌초되면서 현실화하지 못했다. 정부 역시 5G를 기존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었다. SKT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를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을 내린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의

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에게 올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LG유플러스도 “공정위 의결서를 받지 못한 만큼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이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

국내주가 상승·외인 리턴... 올해 순대외금융자산 17억弗 ↑

한은 1분기 국제투자대조표 “韓 대외 건전성 양호한 수준”

우리나라 지급능력을 볼 수 있는 순대외금융자산이 올해 들어 17억 달러 넘게 증가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 투자하는 ‘대외금융자산’이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대외금융부채’보다 더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순대외 금융자산은 전 분기말 대비 17억 달러 증가한 7730억달러로 집계됐다. 순대외금융자산은 국내 거주자의 해외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자산’에서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의미하는 ‘대외금융부채’를 뺀 수치다. 대외금융자산은 2조2004억달러로 전

분기 말과 비교해 317억달러 증가했다. 직접투자는 지분투자(156억달러)를 중심으로 같은기간 162억달러 늘었고, 증권투자는 글로벌 주가상승과 거주자의 지분증권·부채성증권 투자가 확대되며 367억달러 증가했다. 대외금융부채도 1조4274억달러로 전분기말 300억달러 늘었다. 직접투자는 지분투자(-30억달러)를 중심으로 19억달러 감소했지만, 국내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의 지분증권 투자가 확대되며 증권투자가 374억달러 증가했다.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3562억달러로 집계됐다. 대외채권은 1조212억달러로 장기대외채권보다 단기대외채권이 더 큰폭으로 줄면서 5억 달러 감소했고, 대외채무

는 단기외채가 예금취급기관 차입금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장기외채가 더 크게 줄면서 3억 달러 감소했다. 준비자산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40.8%로 1.4%포인트(p) 상승했다. 준비자산의 증가(29억달러)에도 불구하고 단기외채가 더 크게 증가(+72억달러)하면서 3분기 만에 상승 전환했다. 대외채무 대비 단기외채는 26.1%로 1.1% 상승했다. 유복근 국외투자통계담당은 “우리나라는 GDP의 40% 이상을 순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순대외자산국 지위를 2014년부터 유지하고 있다”며 “외환보유액도 세계 9위 수준인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대외 지급 능력과 외채 건전성 측면에서의 대외 건전성은 양호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현대차·환경부 등 민관 어벤져스 속속 집결

▶▶ 1면 ‘갈길 먼 수소 모빌리티’서 계속

2024년 CR-V 기반 수소전기차 출시로 다시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다. ◆‘협력’으로 수소 벨류체인 구축 인프라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소 시장으로서는 완성차 업계의 수소차 발전 외에도 필요한 손길이 많다. 특히나 안정적인 수소 시스템이 구축되면 충전 인프라와 유통 인프라 구축이 과제로 꼽힌다. 국내에서는 현대차와 SK E&S 등 수소 개발에 투자 중인 7개 기업이 정부 지자체와 손잡고 ‘수소버스’를 보급하는 등 실제적인 시스템 도입에 나서고 있다. 참여기업의 통근버스를 2023년까지 250대 이상, 2026년까지 2000대 이상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협약목표 달성을 위해 수소버스의 구매 보조와 성능보증 기간 확대를 추진해 주고, 수소충전 기반 확충과 관련 기업 및 운수사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확산을 위해 정책적·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수소버스 제작사인 현대자동차는 협약목표 달성을 위한 수소버스를 충분히 생산·공급하고, SK E&S는 수소 통근버스 운행 시 충전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충전소를 적재적소에 설치해 운영한다. 지자체는 신속한 수소버스 전환을 위해 충분한 구매 보조금 확보와 적시 집행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수소충전 기반 확충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간경화·간암 등 유발 ‘NASH’... K제약 치료제 개발 ‘순항’

〈비알코올성지방간염〉

글로벌 대형 제약사 번번이 개발 실패 전 세계적 유병률 2~4% 치료제 아직 한미약품, 가시적 성과로 주목 받아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비알코올성지방간염(NASH)을 K-제약이 정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전 세계적으로 NASH 치료제 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들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한미약품과 동아에스티, 유한양행, LG화학 등이 NASH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 NASH는 알코올을 섭취하지 않는 데도 간세포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질환이다. 간내 염증 및 섬유화를 특징으로, 간경화, 간암, 간부전 등 심각한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은 2~4%, 미국의 경우는 3~5%에 달하지만 개발된 치료제는 없다.

하지만 개발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 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한미약품은 지난 19~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흉부학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NASH 치료제로 개발 중인 ‘렙스트리플 아고니스트’를 특발성 폐 섬유증(IPF)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FDA) 위장약자문위원회(GIDAC)는 지난 19일 인터셉트 파마슈티컬스의 NASH 치료제 오칼리바(오베티폴산) 신약승인신청(NDA)을 검토했다.

이날 회의에서 “2기 혹은 3기 섬유증을 동반한 NASH 환자에서 오칼리바 25mg의 이점이 위험보다 더 크다”라는 질문에 자문위원 16명 중 12명이 반대 표를 던졌다. 찬성과 기권은 각각 2명이었다. 자문위원 16명 중 15명은 오칼리

바의 글로벌 임상 3상 연구 747-303의 데이터가 제출 및 검토될 때까지 승인을 연기하자는 의견에 찬성했다. 자문위원회 투표는 구속력은 없지만 FDA는 승인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이들의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

화이자도 지난 2020년 NASH 치료 후보물질 임상 1상을 중단했으며, 안센 역시 지난 2월 애로우헤드 파마슈티컬스로부터 도입한 NAHS 신약후보물질

에 대한 권리를 반환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곳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NASH 치료 혁신 신약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미국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로부터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의 글로벌 임상 2상을 ‘계획 변경 없이 지속 진행하라’는 권고를 받았다.

한미약품은 지난 19~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국흉부학회 국제 컨퍼런스에서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특발성 폐 섬유증(IPF) 치료제로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주목을 받았다.

FDA는 2022년 7월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를 NASH 치료를 위한 패스트 트랙 개발 의약품으로 지정했으며 P CB(원발 담즙성 담관염) 및 PSC(원발 경화성 담관염), IPF(특발성 폐 섬유증) 치료를 위한 희귀의약품으로도 지

정한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삼중작용 혁신 바이오신약 렙스 트리플 아고니스트가 다양한 적응증에서 의미있는 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다”며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발과 상용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는 미국 자회사 뉴로보 파마슈티컬스에 기술이전 한 NASH 겸 2형 당뇨병 치료제 ‘DA-1241’의 미국 임상 2상을 최근 FDA로부터 허가 받았다. 올해 3분기 안으로 임상을 시작해 내년 하반기에 마친다는 구상이다. 일동제약 역시 지난해 8월부터 NASH 치료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유한양행, LG화학도 임상 1상 단계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 기준으로, 2021년 2270억원 규모에서 2031년에는 약 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추경호 “韓 세계은행의 ‘혁신·기술 허브’ 거듭나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세계은행그룹 한국사무소 10주년 韓 핵심적 파트너로 협력관계 구축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가 혁신과 기술의 허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세계은행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개도국 등과 적극 공유할 것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세계은행그룹(WBG) 한국사무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안나 비에르데 세계은행 사무총장과 개도국 고위급인

사, 국내 협력기관 및 민간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은 세계은행의 주요 공여(供與)국이며 수원(受援)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독특한 경험 있다”며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은행의 핵심적 파트너로서 쌍방향의 굳건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세계은행이 한국의 혁신 역량과 기술 능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사무소 개소 이후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가 가진 개발 관련 새로운 역량과 리더십이 인정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향후 한국사무소가 세계은행에서 진정한 의미의 혁신·기술 허브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한국이 강점을 갖는 기후·디지털 분야는 최근 개도국이 직면하고 있는 주요 도전요인이므로 한국사무소가 한국의 경험과 자산을 활용해 세계은행 내 혁신·기술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한국사무소가 한국의 우수한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주길 바란다”며 “개발경험과 재원이 풍부한 역량 있는 한국기업들이 많은 만큼 기업들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국사무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무소가 개발경험을 분석해 개별국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것을 주문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의 소중한 경험을 세계은행이라는 최고의 플랫폼을 통해 전세계에 전파해나갈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한국이 어떻게 중진국 함정을 극복했는지 등을 분석한 한국혁신보고서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4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세계은행(WB) 한국사무소 개소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안나 비에르데 WB 사무총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이번주 ‘WB-KDI 혁신보고서 발간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지난해 국내외 뉴스 가 한 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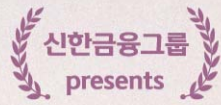
2023 연합연감 출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종합 사료집 ‘2023 연합연감’이 출간됐습니다. ‘2023 연합연감’은 170여 명의 필진이 참여해 지난해 국내외 분야별 주요 뉴스와 이슈를 체계적으로 집대성했습니다. 핫뉴스를 다룬 ‘초점’에서는 청와대를 떠나 공산 시대를 개막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종합적으로 다뤘습니다. 또 이태원 헬러원 침사, 초연결 사회의 허점을 드러낸 키키오 장애, 부동산 급락 등 대형 이슈와 사회·경제적인 과제를 짚었습니다. 한국 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오른 손흥민, 세계를 선도하는 K-컬처 등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이밖에 주요 사건사고를 일지별로 정리해 충실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주요 뉴스와 이슈에 사진, 도표, 각종 통계, 그래픽 등을 함께 편집해 지난 1년간 일들을 한눈에 보도록 정리했습니다. 자료 편에는 통계, 일람, 주요 연설·발표문, 국회 본회의 의결 법안,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등 다양한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북한 편에서는 연합뉴스가 독점 배포하는 조선중앙통신사 뉴스와 조선중앙TV 보도 등을 토대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급변하는 북한의 정세와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연설문, 북한 10대 뉴스, 일지, 연표 등도 담았습니다. 또 김주애, 김여정 등 지난해 조명받은 주요 인물 정보와 같은 특수 콘텐츠를 수록했습니다. 연합뉴스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입법·사법·행정부와 각종 공공 기관에 연합연감을 무료로 기증합니다.

규격 4×6배판 양장본
분량 1천336쪽 정가 18만원



World EXPO 2030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신한금융그룹이 응원합니다
BUSAN, KOREA



“영화 같지만 진짜로 일어나고 있는 일”

예고 없이 찾아온 위기에 평범한 일상마저 위태로워진 가족,
도움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며 이겨내는 위기 극복 감동 실화

따뜻한 내일을 위해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



이웃의 위기 극복 실화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선한 세상 이야기

[신한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2018년에 시작해 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4,800여 가정을 지원하고 함께하며,
우리 곁의 이웃들이 따뜻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감동 실화 감상하기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SI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

+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  신한금융그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與 “입법 폭주 막아낼 것”

野 환노위서 부의 요구의 건 상정 與 소속 위원들 반발... 전원 퇴장 “당 지도부에 현재 권한쟁의 요청”

국회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24일 여당 소속 위원이 퇴장한 채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은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의 최대 쟁점이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의 부의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재석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의결했다. 여당 소속 위원들이 퇴장했기 때문에 반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요구건과 관련해 전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항의를 한 뒤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대나 기권은 없었다.

앞서 김영진 환노위 야당 측 간사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하면서 “지난 4월 26일 환노위에서 전해칠 환노위장이 법사위에 노조법 2, 3조 개정안 관련 논의를 요청했다. 그럼에도 상임위 통과 이후 90일이 경과됐음에도 법사위에서 논의

가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 계류 60일이 경과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진전이 없을 시 본회의에 직회부 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임이자 여당 측 간사는 “야당 측에서 시간 끌기라고 하는데,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상의하고 합

의를 해서 타협을 의뢰하는 것을 시간 끌기라고 하나, 갑자기 기습적으로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내밀어서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김 간사께서 법사위에서 논의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 왜 굳이 다시 상임위로 가져와서 국민에게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여주나. 충분히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도 않았다. 숫자가 많다고 밀어붙이나”라고 반박했다.

전해칠 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 주된 책무이다.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6개월 이상 논의했다. 백지 상태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입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아무런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노사관계에 의해서 끊임없는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가게 된다면 또 한번 의원들의 논의와 토론이 있을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 절차적으로 지연할 수 없다. 오늘 환노위에서 결론나는 것이 있다면 본회의에서 논의하고 그렇지 않다면 장외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역할이다”라며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직회부 처리되자 여당 소속 환노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도 법 개정안의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면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방치한 것이다. 이제와서 윤 정부 발목 잡고 괴롭히기 위해 국민의 삶과 법치마저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와 민생 미래 일자리 해치는 이 법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이 법의 통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게 요청한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청년·취약계층 정책지원 속도

예비군 3권 보장 정책 발표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

국민의힘에서 학생예비군이 겪는 학업상 불이익은 원천 차단하고, 훈련 실비도 실질화하기로 했다. 최근 전기·가스 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에너지 바우처도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당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산토끼(중도·무당층) 공략에 나선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청년 정책입안 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24일 서울 동작구 송실대학교에 방문, ‘예비군 3권(이동권·학습권·생활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훈련장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힘든 곳에 있는 경우, 지정된 장소에서 ‘예비군 무료 수송 버스’를 운용하기로 했다. 지정된 장소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왕복 이동하는 수송 버스로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예비군 훈련 시 대학 수업 출석 미인정’ 사례를 막기 위해, 예비군법 제10조의 2 등 관련 법안도 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송실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송실대학교 현장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예비군 학습권이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예비군 훈련 시 생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대 청년의 삶과 밀접한 학생예비군 처우 문제 개선에 나서면서 지지세를 확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앞서 청년정책네트워크는 ‘누구나 토익 5년’ 정책(채용 전형 시 제출하는 토익(TOEIC) 성적 유효기간을 기존 2년→5년 확대)을 제안한 바 있다. 김기현 당 대표는 24일 예비군 3권 보장 정

책 발표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청년 정책을) 체크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비군 3권 보장 정책 발표 현장에는 김병민 최고위원, 김가람 청년대변인 등과 함께 송실대 총장 등 학교 관계자와 총학생회장, 국방부 측에서도 참석했다.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인 민생119도 같은 날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갖고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소액 생계비 대출 한도 상향(100만원→200만원), 이자율 10%대 인하 ▲식품요식업계 취업 시 필요한 건강진단결과서 전자문서화 및 수수료 무료화, 발급 기간 단축 등 정책 추진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민생119가 제안한 내용은 당 정책위원회에 전달, 민생 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조수진 민생119 위원장은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요 정책 논의 결과에 대해 설명한 뒤 “다음 현장은 최근 민주노동당의 불법적 파업 강요와 특정 정당 가입 종용 등으로 위기를 맞은택배 산업 현장 방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與 “현장 위법 만연... 공권력 바로 세울 것”

》1면 ‘불법전력단체 집회...’서 계속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번 민주노동 건설노조 집회에 대한 단호한 수사와 법적 조치를 천명함으로써 노동계와 정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 도로상에서 개최한 시위 역시 신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현장에서 집시법 위반 사례가 만연해 현장에서 법대로 지금 집회시위가 안 이뤄지는 부분이 있다. 야간 문화제를 방제한 판법집회 등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시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국회에서 입법 조치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회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본 의원이 발의한 집회시위 시간과 관련된 법안을 중심으로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킨 매뉴얼 등 경찰 차원에서 찾아서 개선해야 한다”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이나 현장의 잘못된 관행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로 현장 공직자들이 불이익받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정도의 당정협의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내부단속 나선 이재명... 검찰·징계 줄이어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비위, 문자 테러 강경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보유’ 논란이 일으킨 소용돌이로 당 안팎으로 타격을 입었음에도 비위 사건이 계속되자 기강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재명 당 대표는 지난 23일 의정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동료 의원에게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박성호 부천시의회원과 관련해 윤리 감찰을 하라고 지시했다. 박시 의원은 해당 의혹이 잇따라 보도되자 탈당계를 제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께서 부천시 의원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서 엄벌하겠다고 지시했고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성비위와 관련해 해선 영구 복당 불허가 원칙이고 앞으로 징계가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민주당은 비(非)이재명계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강성당원 A씨를 제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민주당에 따르면 경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주 A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 A씨는 비이재명계인 전혜숙 의원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를 인지한 전 의원이 조 정식 사무총장에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홍 기자

민주당, ‘노동탄압·과잉수사’ 대응 TF 구성

위원장에 진성준 의원 내정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과잉수사에 대해 역olum을 호소하며 유명을 달리한故 양희동 건설노동자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기획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4일 <메트로경제>의 취재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내 관련 상임위원회로 구성된 ‘윤석열 정부 건설노동자 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TF 위원장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이 내정됐고, 간사

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이, 위원으로는 우원식(환노위)·박주민(법제사법위원회)·최인호(국토위 간사)·이용우(정무위원회)·최기상(행정안전위원회)·황운하(정무위·운영위) 의원이 함께 한다.

이에 상임위 별도 현안 질의를 비롯해 경찰청의 수사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 건설산업 전반에 대한 불법행위 및 불법단건 하도급 근절 법안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조를 때려잡는 것이 노동개혁이 될 순 없다. 제2, 제3의 양희동 같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창업아카데미

무료 교육프로그램

복지 쇼핑몰(온라인) + 건강백화점(오프라인)

교육일정

A반 : 2023년 **매월 3회** 첫째, 둘째,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 ~ 9시
 B반 : 2023년 **매월 3회** 첫째, 둘째, 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 ~ 5시

교육정원

매월 선착순 **30명** (정원초과 시 익월 수강)

교육비

전액 무료

교육대상

전국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주부사원, 직장인, 퇴직자 등

교육목표

실전교육 → 전문적인 사례 중심
 매출상승 → 다양한 매출전략 교육
 전문양성 → 성공적인 창업 배출

교육강사

햇터그룹 회장 박광섭 직접 강의 (CEO 35년 경력)

교육약력

1996년 ~ 現 : 대한홍삼 대표이사
 2003년 ~ 現 : 햇터 대표이사
 2003년 ~ 現 : 햇터방송 브레인TV 대표이사
 2005년 ~ 現 : 햇터라이프 대표이사
 2009년 ~ 現 : 한삼장홍삼 대표이사

교육주관



2003. 9. 12 설립

햇터그룹지주회사

자금/투자 관리
 법무 및 행정 관리
 세무회계 관리



2003. 10. 1 설립

30천만이상 시청자보유
 방송전문기업

방송 콘텐츠 제작
 방송 기획 및 송출
 광고주 관리



1996. 9. 3 설립

국내 5대 브랜드
 홍삼전문기업

상품 개발 및 제조
 브랜드 홍보 / 관리
 대리점 관리



2009. 10. 1 설립

건강식품 / 용품
 유통전문기업

온라인 전문 유통
 오프라인 전문 유통
 해외수출 전문 유통



2005. 5. 20 설립

업계최초 계층형B2E
 E커머스 플랫폼 전문

시스템 개발
 위탁운영 서비스
 물류/상품 서비스

교육장소

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마산로96, 대륭테크노타운 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1호선 7번출구 또는 7호선 6번출구 → 600M

교육문의

햇터그룹 창업아카데미 **차장 황 선 영 010-4480-0045**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1시 30분 ~ 12시 30분)

가입자 수 늘었지만 수익성은 글썸

카드업계 '애플페이 도입' 눈치챈

우선진입 현대카드, 회원 급증
거래액 부문에서는 반등 못해
소비력 높은 기성세대 사용 저조



애플페이 진입을 놓고 카드사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뉴스시스

애플페이 진입을 놓고 카드업계의 쟁점이 복잡해졌다. 현대카드가 우선진입을 통해 신규 회원 가입률 1위를 달성했지만, 거래액 부문에서 반등을 꾀하지 못해서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여부를 놓고 눈치싸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24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카드의 본인 명의 신규 가입자 수는 15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에 이어 집계에 포함된 8곳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롯데·현대·우리·하나·비씨) 중 가장 높은 수치다.

3개월 사이 총가입자 수를 놓고 업계 3위인 KB국민카드와 격차를 좁혔다. 지난 4월 현대카드의 총회원 수는 1165만9000명으로 올해 2월(1143만명) 대비 2% 올랐다. 신규 회원의 수가 둔화하고 있는 카드업계의 특성을 고려하면 애플페이 진입은 성공적이다. 같은 기간 KB국민카드의 총회원 수는 1169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월(1159만9000명) 대비 0.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상품판매에는 성공했지만 수익성과 직결되는 이윤액 부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양새다. 올해 2~4월 현대카드의 거래액 상승세는 우리

(18.4%)·롯데(11.6%)·비씨카드(11.2%)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별도의 결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애플페이의 특성을 고려하면 수익성은 떨어질 것이라 관측이다.

현대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들은 애플페이 진입을 놓고 고심이 깊어진다. 상표 가치 제고 기능은 입증됐지만 여전히 수익성을 장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서로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수익성을 고려해서 진입해야 하는데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없으니 숙고할 수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문제는 수익성 둔화 요인으로 꼽히는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수익성 둔화 원인으로 NFC단말기와

MZ세대 중심 소비가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NFC단말기 보급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달 스타벅스가 애플페이 가맹점 대열에 합류하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지만 여전히 편의점, 대형프랜차이즈를 제외하면 마땅한 사용처가 없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애플페이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의 15% 미만일 것으로 추산한다.

MZ세대를 중심으로 아이폰의 선호도가 높다는 것 또한 거래액 둔화의 주요인으로 등장했다. 구매력과 소비력이 높은 기성세대의 아이폰 사용률이 낮아 애플페이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한국결제업이 발표한 '스마트폰 사용률 & 브랜드,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20~30대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애플과 삼성의 제품이 비슷하지만 40대 이상에서는 삼성이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어 50~60대의 경우 삼성의 점유율이 80%에 달한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카드사들의 애플페이 진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MZ세대 공략을 위해 애플페이 진입은 필수적이라는 것.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연체율, 조달비용 등의 이슈가 해결되면 애플페이 진입에 눈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통화별 거주자외화예금 잔액 추이) (기말기준, 억달러)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B-A
					3월(A)	4월(B)	(B-A)	
미달러화	687.8	800.4	829.6	953.8	843.3	792.0	(86.7)	-51.3
엔 화	44.5	54.4	52.5	66.1	56.6	53.2	(5.8)	-3.4
유로 화	32.9	47.1	52.0	55.0	48.8	44.5	(4.9)	-4.3
위안 화	14.2	19.8	18.7	17.8	12.8	12.3	(1.3)	-0.5
기타통화	15.0	20.3	19.9	17.1	13.4	11.9	(1.3)	-1.5
합 계	794.4	942.0	972.7	1,109.8	974.9	913.9	(100.0)	-61.0

주 : 1) () 내는 비중(%) 2) 영국파운드화, 호주달러화 등 /한국은행

4월 달러 중심 외화예금 61억 달러 감소

달러화 예금 51.3억 달러 줄어

지난달 우리나라 거주자외화예금이 61억달러 감소했다. 국내 기업들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자금을 인출하면서 달러화예금을 중심으로 외화예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3년 4월 중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 외화예금은 913억9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61억달러 줄었다. 거주자 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보유한 국내 외화예금의 합이다.

기업을 중심으로 달러화예금과 유로화예금이 큰폭으로 줄었다. 달러화예금은 51억3000만달러 감소한 792억달러를 기록했다. 기업이 수입결제대금

을 지급하고, 해외 직접투자 자금을 인출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원·달러 환율이 다시 1300원대로 상승한 것도 기업의 자금흐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1220원대이던 환율은 3월에 이어 4월 1320원대까지 뛰었다. 일반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기업이나 개인은 차익실현을 위해 비싸진 달러화를 내다파는 경향이 있다.

유로화예금도 기업의 수입결제대금 지급으로 감소했다. 유로화예금은 한 달 전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한 445억달러로 집계됐다.

은행별로 보면 국내은행 외화예금은 58억3000만달러 감소한 820억2000만달러를, 외은지점은 2억7000만달러 감소한 93억 7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밖에 기업예금은 54억1000만달러 감소했고, 개인은 6억9000만달러 줄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AI 공들이는 2금융권, 제도 정비 병행해야

챗봇서비스 등 고객 편의성 높지만
모바일 뱅크런 우려 안전장치 필요

2금융권이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출시에 공을 들이면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이탈도 쉬워져 '양날의 검'이라는 지적이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금융 서비스가 유행을 드러내고 있다. 2금융권에서는 보험사와 신용카드사가 AI 기술 활용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보험사의 경우 업무 특성상 AI 기술을 적용하기에 최적의 환경이란 의견이다. 보험인수, 보험금 청구·심사·지급, 사후 소비자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는 AI 기반 데이

터 가공에 속도를 낸다. 단순 상담은 물론 소비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2금융권의 AI 활용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등장한다. 진입 문턱이 낮아진 만큼 이탈 또한 쉬워서다. 디지털 전환이 올해 미국 내 주요 은행 파산에 속도를 더한 요인으로 지적받은 만큼 연체율, 유동성 등 신용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보험업권은 데이터 활용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을 최대 숙원 과제로 책정하고 관련 업계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보험료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국내 보험사의 AI 활용도는 단 순상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에서

는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이 AI 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교보생명은 지난 2월 'AI 컨택센터'의 운영을 시작했다. 상담업무를 비롯해 상품 완전 판매 모니터링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어 미래에셋생명 또한 AI 기반 '챗봇서비스'를 도입했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보험가입상담과 업무처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슈어테크' 시장의 성장이 접체지는 만큼 제도 정비를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슈어테크란 보험 업무에 AI 등 기술을 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오는 2028년 세계 인슈어테크 시장이 609억달러(한화 80조 705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내 인슈어테크 시장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

/김정산 기자

금융권, 29일 휴무... "한도 확인 하세요"

대체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대출·예금 만기일 30일로 연장

오는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대출만기일과 각종 결제일이 30일로 자동 연장된다. 당일 부동산 매매·전세 계약이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미리 자금을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상향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체공휴일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유의사항에 따르면 우선 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사의 대출금 만기일이 29일 경우 만기일은 연체이자 없이 30일로 연장된다.

예금 만기일도 30일로 연장된다. 단,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영업일인 26일에 인출할 수 있다.

29일 전후 펀드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라면, 사전에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를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주식형 펀드는 일반적으로 23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공휴일 전 영업일인 26일에 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일자가 29일이라면 이용대금은 30일에 출금된다.

보험금 지급일이 29일 전후라면 사전에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실손보험의 경우 통상 보험금 청구 후 3영업일 이내 지급돼야 한다. 26일

(관련규정상 인출·이체한도)

구분	1회 이체한도	1일 이체한도	
		개인	법인
현금 카드	인출한도	100만원	600만원
	이체한도	600만원	3000만원
텔레뱅킹	개인	5000만원	25억원
	법인	1억원	5억원
인터넷뱅킹	개인	1억원	5억원
	법인	10억원	50억원
모바일뱅킹	1억원	5억원	
메일뱅킹	1000만원	5000만원	

*금융회사별로 한도 금액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금융회사에 한도를 확인 /금융위

신청하면 보험사와 협의해 내달 1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29일 부동산 매매·전세거래나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은행을 통해 확인하거나, 거래상대방과 거래일을 사전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금융시장은 휴장하고,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돼 있다면 금융회사 영업점에 문의하고, 추가 궁금한 사항은 금융원 통합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새마을금고, 카톡 이모티콘 나눔행사

'창립 60주년' 기념 무료 배포

새마을금고가 카카오톡 이모티콘 나눔 행사를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는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새마을금고 창립 60주년 축하 이모티콘 무료 배포'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

일 밝혔다.

선보인 이모티콘은 새마을금고의 캐릭터인 '블루원정대'와 '김금고'를 활용했다. 총 16종으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으로 구성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선착순 6만명에게 무료 배포한다. 새마을금고 공식 카



카오톡 채널을 구독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김정산 기자

렘펠 주도 글로벌 차량 흥행 성공... 9년만에 흑자전환

〈한국지엠 사장〉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트랙스 크로스오버〉

한국지엠, 로베르토 렘펠 리더십
전년비 영업손익·당기순손익 흑자
로베르토 렘펠 사장
“지속 가능 성장 달성할 준비 됐다”



렘펠 사장이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성공을 기원하며 쉐보레 대리점 대표 및 카메라저의 티셔츠에 사인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모습

다음달 1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로베르토 렘펠 한국지엠 사장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렘펠 사장은 수년간 적자에 내수·수출 등 생산 감소로 인한 위기를 맞은 한국지엠의 체질개선을 통한 흑자전환을 이끌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트랙스 크로스오버의 흥행과 GMC 브랜드의 성공적 론칭 등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내고 있다. 특히 한국지엠의 전체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는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렘펠 사장이 지엠테크니컬센터코리아(GMTCK)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개발을 주도한 모델이기도 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출시된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영업일 기준, 사전계약 7일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인 1만3000대를 기록했다. 실제 한국지엠은 지난 1~4월 트랙스 크로스오버

출시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64.8% (11만대5389대) 증가, 전체 판매량은 54.9% (12만4456대)로 판매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

이같은 흥행을 뒤에는 렘펠 사장의 역할이 컸다. 렘펠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GM의 여러 글로벌 사업장에서 제품 기획 및 차량 개발을 담당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근무했으며, 2019년에는 GM의 연구개발 법인인 GMTCK 사장으로 선임됐다. GMTCK는 GM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연구개발 센터다. 렘펠 사장은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와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연구개발 했다.

두 모델 모두 GM의 핵심 글로벌 차량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며 한국지엠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그가 GMTCK 사장이자 수석 엔지니어로 주도해 개발한 마지막 차량으로, 기자간담회 등 공식석상에서 ‘베이비(Baby)’라고 부를 만큼 특별한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지엠은 이를 바탕으로 렘펠 사장이 취임 한 지난해 매출 9조 102억원, 영업이익 2766억원, 당기순이익 2101억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서 모두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한국지엠이 흑자를 기록한 건 2013

년 이후 9년 만이다. 이 같은 실적에 대해 우호적인 환율, 수출 증가, 가격 강세, 반도체 가용성 확대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한국지엠은 올 한해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또 렘펠 사장은 한국지엠의 새로운 먹거리를 마련하는데 성공했다. 지난해 창원공장 9000억원, 부평공장 2000억원 등 1조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 이와 함께 창원공장을 연간 최대 28만 대 규모의 생산 역량을 크로스오버 유틸리티차(CUV) 생산공장으로 탈바꿈 시켰다.

더불어 렘펠 사장은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지엠은 GMC 브랜드 론칭과 함께 시에라를 국내 니치마켓에 안착시키고, 국내 생산되는 글로벌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성공적으로 출시하는 등 국내생산 모델과 수입모델을 구분하지 않고 글로벌 GM의 제품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그는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국내시장에서도 글로벌 모델을 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 GM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며 브랜드 아이

덴티티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

향후 한국지엠은 내수시장에서는 질적성장, 수출 시장에서는 양적성장을 꾀하며 안팎으로 내실 갖추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의 주력 부문인 수출 시장에서는 많은 실적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올해 한국지엠의 새로운 글로벌 모델인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본격적인 생산 및 출시에 돌입했으며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 4월 미국 소형 SUV 부문 소매 판매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등 꾸준히 인기몰이 중이다.

렘펠 사장은 연초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GM은 매우 야심 찬 계획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실하게 마련했으며, 올해 흑자 전환과 이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한 바 있다. 렘펠 사장은 올해 ▲글로벌 신제품 생산 극대화 ▲쉐보레·캐딜락·GMC를 통한 멀티 브랜드 전략 ▲전기차 포트폴리오 확장 ▲프리미엄 고객 경험 확대 등을 핵심 사업 전략으로 꼽았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전자,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 글로벌 공략

LG전자는 LG 매그니트를 전세계 시장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G 매그니트는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 최적화했다.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벽을 만들어 배경을 구현해 촬영하면 별도 특수 효과 없이 현장감을 담을 수 있다.

/LG전자

LG전자 마이크로 LED 사이니지가 전세계 스튜디오를 공략한다. LG전자는 LG 매그니트를 전세계 시장에 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LG 매그니트는 ‘버추얼 프로덕션 스튜디오’에 최적화했다. 초대형 디스플레이로 벽을 만들어 배경을 구현해 촬영하면 별도 특수 효과 없이 현장감을 담을 수 있다.

HD현대, ‘친환경 해상공급망 구축’ 나선다

포스코·해운4사와 업무협약
인공지능 기반 ‘오션와이즈’ 활용

HD현대가 국내 대표 철강 및 해운 기업들과 손잡고, ‘오션와이즈(Ocean Wise)’를 통한 친환경 글로벌 해상 공급망 연결에 나선다.

HD현대는 국적 선사 4곳(에이치라인해운·대한해운·팬오션·폴라리스쉬핑), 포스코와 함께 ‘조선·철강·해운 3자 간 탄소중립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선박 건조-선박 운영-원료 운송’으로 연결된 해상 물류 밸류체인 당사자들이 직접 탄소중립을 위한 ESG 협력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협력의 주요 내용인 온실가스 모니터링을 비롯한 운항선박의 실증은 HD현대의 오션와이즈를 통해 이뤄진다.

오션와이즈는 인공지능(AI) 기술 기반의 선박 운항 최적화 및 탄소배출 모

니터링 솔루션으로, HD현대가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밝힌 ‘오션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비전 중 하나다.

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는 화주인 포스코의 선단 관리 시스템(PosSIM)에 오션와이즈를 탑재하고, 해운 4사는 오션와이즈가 적용된 선박들의 운항 효율과 연료 소모량, 탄소배출량 등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해 공유할 예정이다.

HD현대는 이번 실선 검증을 통해 선박 운항 중에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션와이즈의 알고리즘을 고도화해 포스코, 해운 4사와 함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개선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HD현대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담은 ‘오션 트랜스포메이션’ 비전을 발표하고 실천 중이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AI기술 도입해 中企·지역 동반성장

‘스마트공장 3.0’ 사업 시작
소멸위기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매년 100억씩, 3년간 300억 투자

삼성전자가 중소기업 공장을 인공지능(AI)으로 업그레이드한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

삼성전자는 중소기업 제조현장을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 3.0)으로 고도화하는 ‘스마트공장 3.0’ 사업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제조현장을 AI와 데이터 기술을 더한 지능형 공장(스마트공장 3.0)으로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스마트공장 사업 참가사와 새로운 기업도 발굴한다.

우선 삼성전자는 이미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해 기초적 데이터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업체들을 고도화한다. AI 기술로 생산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해 ‘지능형 공장’ 수준으로 새로 업그레이드 한다.

지역 균형 발전도 사업 주요 목표로 삼았다. 지역 사회 자생력도 키운다. 인구소멸위험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지역에 다시 활기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해 부산에 동아 플레이팅을 방문한 모습.

불어넣겠다는 포부다. 지방자치단체와 수혜 기업이 함께 하는 ‘자생적 지역 스마트공장 생태계’ 확산도 지원키로 했다. ESG 경쟁력을 지원하는 전담 조직도 별도 구성한다.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과 탄소 배출 감축 등 중소기업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를 돕기 위함이다.

삼성전자는 이를 위해 매년 100억원씩, 3년간 3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600개 중소기업에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고도화하는 게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삼성전자 출연 금액 만큼 매칭 지원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모집과 심사 및 선정, 사후 평가를 맡았다.

자생적 지역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위

해 지자체와 수혜기업까지 힘을 보탠다. 전라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별도로 전북형 스마트공장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일찌감치 자체 생태계를 만들 계획을 세웠다.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전북 중소기업 대표들도 지난 3월 ‘민간 멘토단’을 출범하고 지역 스마트공장 사업을 돕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삼성의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은 이미 성과가 입증됐다”며 “전북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삼성의 상생형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거둔 제조 중소기업이 스스로 혁신의 선두에 합류하고,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티웨이, 7월 14일부터 홍콩노선 ‘재운항’

티웨이항공이 여름 성수기 시즌을 앞두고 닫혔던 하늘길을 넓힌다.

티웨이항공은 코로나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멈췄던 인천~홍콩 정기노선을 7월 14일부터 국내 LCC 중에서는 처음

으로 재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 19년말 첫 취항한 인천~홍콩노선은 평균 75%의 탑승률을 보이며 고객들이 많이 찾았던 노선으로 이번 티웨이항공의 재운항을 통해 합리적인 운

임과 다양한 스케줄 이용을 통한 편의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동양과 서양의 문화가 공존하는 매력적 도시인 홍콩은 젊은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곳으로 이번 티웨이항공의 재운항을 통해 많은 고객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허정운 기자 zelkova@

푸조 CEO 방한... “진보적인 쾌락주의자 만족시킬 SUV”

첫 ‘푸조 브랜드 데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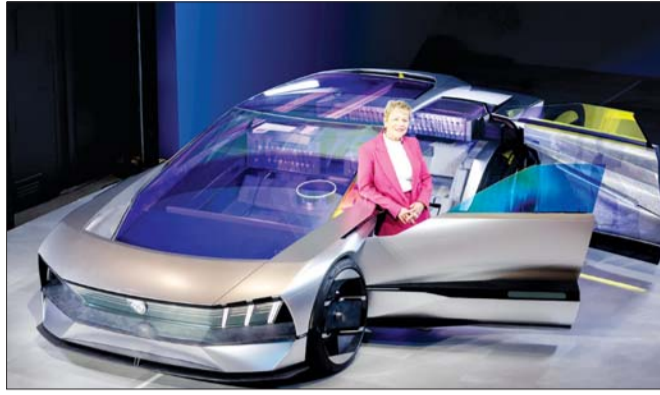
스텔란티스-푸조 합병 후 계획 소개
전시장·서비스센터 18개씩 확대
IAP서 ‘뉴 푸조408’ 첫 번째로 선보

푸조가 세계에서 단 1대만 있는 콘셉트카를 선보이면서까지 국내 시장 재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24일 서울에서 ‘푸조 브랜드 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푸조 브랜드 정체성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자리로, 스텔란티스와 푸조 합병 이후 약 1년 반 가량 변화와 미래 계획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푸조는 네트워크를 재건하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며, 새로운 딜러사를 추가하고 전폭적인 투자를 통해 2025년까지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18개씩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구에 신규 전장을 개장하고 강남 전시장도 서초로 이전하는



린다 잭슨 푸조 CEO가 푸조 인셉션 컨셉트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24일 서울 강남구 SJ.콘스트할레에서 열린 푸조 브랜드 데이에서 제이크 아우만 스텔란티스 코리아 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

등 개편 작업도 본격화했다.

특히 푸조 글로벌에서 브랜드 CEO인 린다 잭슨과 디자인 디렉터 마티아스 호산까지 참석해 국내 시장에 대한 중요성도 확인했다. 린다 CEO는 한국이 전세계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며, 한국 시장 방향성이 후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전략적인 거점임을 강조했다.

인도와 아시아 태평양(IAP) 지역에서 뉴 푸조 408을 가장 먼저 출시하는

이유도 한국 시장 중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푸조는 23일 국내에 공식 출시됐다. MZ세대를 겨냥한 댄스 챌린지 마케팅을 펼치는 등 노력도 병행 중이다.

린다 잭슨 CEO는 “한국 소비자들, 특히 도심과 레저 생활에 열정적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얼루어와 함께하는 세상이 더 낫다고 믿는, 진보적인 쾌락주의자들에게 세단과 SUV의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뉴 푸조 408은 최고

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푸조는 이날 전세계에서 단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인셉션 콘셉트’도 국내 최초로 공개했다.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3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2025년부터 양산할 새로운 디자인을 도입했다.

인셉션 콘셉트는 순수 전기차 플랫폼 STLA 라지를 기반으로, 100kWh 배터리 리로 최장 800km까지 달릴 수 있다. 최

고출력은 680마력에 달한다. 자율주행 시대를 겨냥해 대시보드를 없애고 스티어링휠을 대체할 ‘하이퍼 스퀘어’를 탑재하기도 했다.

푸조는 전동화에 대한 계획도 자세하게 소개했다. 이른바 ‘E-라이언 프로젝트’. STLA 플랫폼을 활용한 전동화와 함께 충전 및 커넥티비티까지 고객 경험 확대, 그리고 친환경 소재 사용 등 2038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5E’ 목표를 포함한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이크 아우만 사장은 “푸조 브랜드 데이를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헤리티지로 결속된 푸조의 과거, 그리고 뉴 408이 대표하는 푸조의 현재, 푸조 인셉션 컨셉트를 통한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며 “뉴 408 출시를 기점으로, 올해 한국 시장에서 푸조 브랜드를 알리고 아이덴티티를 강화해 나가는 데에 총력을 다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metrososeoul.co.kr

SK온, 신규 장기 재무적 투자 유치... 최대 1.24조 확보

MBK컨소시엄에 약 1조 투자 받아 배터리 사업 성장성·경쟁력 증명 현대차·기아 채무보증 내용 공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이 신규 장기 재무적 투자(상장 전 지분투자) 유치가 성공했다. 이는 SK온이 당초 목표로 했던 투자조달 규모 4조 원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은 24일 이사회를 열어 SK온 투자유치를 위한 주주 간 계약 체결의 건을 승인했다. 이번 계약은 SK

이노베이션, SK온, MBK컨소시엄 간에 체결 예정이며, SK온은 MBK컨소시엄으로부터 8억달러(약 1조5000억 원)를 한도로 투자받을 예정이다. MBK컨소시엄에는 미국, 중국 지역 등의 글로벌 재무적투자자(FI)들이 참여한다.

이에 더해 한국투자PE이스트브릿지 컨소시엄을 통해 투자를 논의 중이었던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상업은행 사우디 국립은행(SNB) 자회사 SNB캐피탈도 최대 1억4400만 달러(약 1900억 원)를 SK온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로써 SK온

은 총 9억4400만 달러(약 1조2400억 원)를 한도로 하는 추가 투자 금액을 확보하게 됐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세계 금융환경이 신규 자본유치에 부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기차 배터리 사업의 성장성과 SK온의 기술 경쟁력이 자본시장에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어 SK온은 지난해부터 배터리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 속 선제적인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 장기

재무적 투자자 유치를 추진해왔으며,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SK온 측은 “300조원에 가까운 누적 수주잔고액을 기록하는 등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주목을 받는다는 평가”라며 자평했다.

SK온은 올해 3월까지 한투PE이스트브릿지컨소시엄을 통해 투자자금 1조2000억원을 조달했으며, 모회사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2조원을 투자받아 총 3조2000억원을 확보했다. 여기에 이번 1조2400억 원의 추가 조달까지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이끌어내

며, 최대 4조4400억 원 조달에 성공하게 됐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현대자동차와 기아로부터 2조원을 차입하는 것에 대해 채무보증하는 내용도 같은 날 공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온이 다양한 재원 확보 방법을 통해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고객사는 배터리의 안정적인 확보 및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SK온은 한국과 미국, 중국, 헝가리에서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88GWh인 연간 생산능력을 2025년 최소 220GWh로 늘릴 계획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

“눈으로 보는 것과 거의 흡사... 인물 대사도 잘 들려”

KT 셋톱박스 신제품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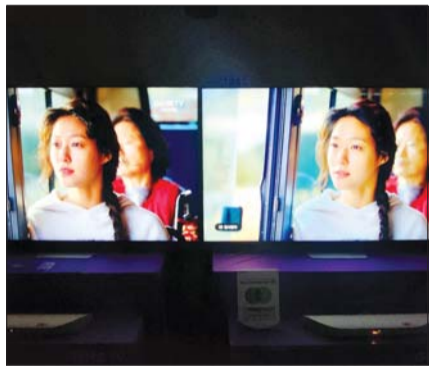
IPTV 최초 HDR10+·돌비 비전 지원
인물·풍경 자연색 가깝게 질감 살려
올인원 사운드바, 영화관 음향 구현

“배우의 목소리가 입체감 있고 생생했다. 볼륨감이 높고 생생하게 울리는 사운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더 빠져들게 만들게 했다.”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KT 셋톱박스 신제품 체험 행사가 진행됐다. 올인원 사운드바는 IPTV 셋톱박스, 무선인터넷 공유기, AI(인공지능) 스피커를 하나로 통합한 올인원 제품이다.

이 셋톱박스는 특히 IPTV 업계 최초로 HDR10+ 및 돌비 비전을 동시에 지원한 게 특징이다. 또 하만카돈 스피커를 탑재해 ‘돌비 애트모스’ 기반의 고음질을 제공한다.

HDR은 눈으로 직접 보는 것과 가장 유사한 수준으로, 화면의 가장 밝은 곳부터 가장 어두운 곳에 이르기까지 밝기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술이 적용됐다. 삼성전자는 HDR10+를 적용하고



왼쪽 TV에서는 HDR10+가 지원되지 않고 오른쪽 TV에서는 이 기능이 지원된다. 오른쪽 영상에서 인물의 밝고 어두움이 한층 더 잘 느껴진다.

있으며, LG전자는 돌비비전 기술을 적용해 이 셋톱박스에는 2가지 기능이 모두 채택됐다.

또 기존의 셋톱박스가 AI(인공지능) 스피커를 동시에 제공할 경우, 여러 케이블을 설치해야 해 단말기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데, 올인원 사운드바는 전원선 1개만 보이고 다른 선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거실에 설치해도 미관상으로 거실을 더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특히 와이파이 설정 및 비밀번호를



왼쪽이 돌비비전이 지원되지 않는 TV, 오른쪽이 돌비비전이 지원되는 TV 제품. 돌비비전 지원 제품에서 사람이나 사물이 더 생동감 있게 보인다고 했다.

확인하려면 공유기 뒷면에 적힌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확인해야 해 불편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셋톱박스는 비번을 입력하지 않고도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모바일로 바로 연결이 가능해져 무척 편리했다.

시연행사에서는 우선 첫번째로 HDR10+ 지원 기능으로 영상이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관찰했다.

오른쪽 TV에서 HDR10+를 지원하니 OTT 영상에서 어두운 부분은 더욱 어둡게 보였고 밝은 부분은 한층 밝게

느껴졌다.

조성제 KT 콘텐츠마케팅 차장은 “삼성전자의 HDR10+이 지원되는 제품은 밝은 부분을 극대화해 준비했다. 배우 얼굴을 밝게 보정해주고, 왼쪽은 하늘 색깔이 탁한 데, 오른쪽 HDR10+ 지원 제품은 하늘 색깔을 실제에 가깝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불빛을 밝게 보이도록 세팅했고 가구 색도 자연색에 가깝게 질감을 살렸다.

멀리서 보면 왼쪽 TV와 오른쪽 TV가 큰 차이가 없어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물의 밝고 어두움이 한층 뚜렷하게 느껴졌고 색감도 더 일상에 가까운 색감이 느껴졌다. 빗꽃 색깔도 더 밝게 연출했고,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도 더 자연스러워졌고, 인물이나 사물들의 디테일이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돌비비전이 지원되는 TV로 이동했다. 다만, 왼쪽의 돌비비전이 지원되지 않는 TV에서는 색감이 더 붉은 색빛도 많이 돌아 더 화사해보였는데, 오른쪽 돌비비전 TV는 실제에 가깝게 보여주기 화사한 맛은 떨어졌다. 색감에 있어 자꾸만 돌비비전을 지원하지 않는 TV의 색감이 눈에 확 들어왔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왼쪽에는 빛이 밝아서 외곽의 색이 명확하지 않은

데, 오른쪽 돌비비전 지원 TV에서는 색이 더 명확하게 보였다.

조성제 차장은 “우주 장면을 볼 때도 왼쪽 빛은 뿌옇게 보이는데 오른쪽은 더 3배가 명확해 보인다. 오른쪽은 하수 빛 같은 명확하게 보이는 데 반해 왼쪽에서는 색이 잘 구분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돌비비전 지원 TV에서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보이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보이고, 더 사물이나 사람이 생동감이 있게 보이게 된다”고 덧붙였다.

올인원 사운드바는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적용됐는데, TV가 이를 지원하지 않아도 사운드바가 있다면 기술 체험이 가능하다.

또 넷플릭스의 콘텐츠 ‘F1:본능의 질주’를 재생하니 자동차 엔진음이 일반 TV 수준이 아닌 영화관에서 구현되는 것처럼 더 증폭돼 구현됐다. ‘보이스 부스트’ 기능은 고객들로부터 영상을 감상할 때 대사가 잘 들리지 않는데, 음량을 높이면 효과음까지 커져 놀라는 경우가 많다는 불만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인물 음성 주파수만 높여 대사가 더 또렷하게 들린다.

KT는 올인원 사운드바에 빠른 충전으로 오랜 사용이 가능한 리모콘도 선보였다.

/글·사진 채윤정 기자 echo@



우리 가족 모두 마그네슘 충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정의 달 5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마그네슘
함량 UP
신제품 출시

이동욱



마그네슘 부족으로 인한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마그네슘 충전 마그네슘 함량 UP Double Action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필 : 2023-1668-002201



신혼부부·1인가구 전용... 합리적 가격

인덕원 퍼스비엘 대우건설 컨소시엄

대우건설·GS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이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일원에 '인덕원 퍼스비엘' 49~84㎡ 2180가구 중 58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타입별료 ▲49㎡ A 215가구 ▲49㎡B 99가구 ▲59㎡A 90가구 ▲59㎡B 144가구 ▲74㎡ 12가구 ▲84㎡ 26가구다.

전 세대가 청년 신혼부부 등 1~2인 세대대를 위한 전용 59㎡ 이하 소형평형부터 74~84㎡ 중형까지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하는게 특징이다.

대부분을 3~4베이 판상형으로 인덕원 퍼스비엘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평균 2886만원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며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자금 부담도 덜어줄 전망이다.

인덕원 퍼스비엘의 향후 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6월 1일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인덕원 퍼스비엘은 브랜드 대단지에 걸맞

게 다양한 테마의 조경을 갖춘 공원형 단지로 선보인다. 단지 내 상쾌한 개방감을 불어넣는 '그랜드비스타'를 비롯해 수목이 어우러진 '에잇센셜가든'(Eightessential Garden)이 조성된다. 또 흐르는 물을 배경으로 돌 조형물이 어우러진 '돌과 물의 풍경'과 다양한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액션 그라운드' 등도 갖춰진다.

이외에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테마 놀이터와 입주민들이 단지 내에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피트니스클럽, GX클럽, 골프클럽, 북&키즈카페, 독서실, 다목적 멀티룸, 시니어클럽 등 주민 편의시설도 곳곳에 들어선다.

대우건설 분양 관계자는 "브랜드·중소형·대단지 분양의 3요소를 갖춘 만큼 인근 거주자 외에 수도권 타 지역에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인덕원 퍼스비엘은 평촌신도시와 인덕원 생활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데다 상품성까지 갖췄다"고 말했다. ☎ 1599-8707



원스톱 쇼핑 시설·뛰어난 도로 교통망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오는 6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일원(옛 동부지법, KT지사) 자양1재정비촉진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 74~138㎡ 1063가구 중 63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자양1구역 복합개발지 내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원스탑 쇼핑이 가능한 다양한 판매시설을 비롯해 8개관 규모의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172실 규모의 5성급 글로벌 브랜드 호텔, 282실 규모의 프리미엄 오피스텔인 '리마크빌'과 업무시설 등이 들어선다.

'구의역 롯데캐슬 이스트폴'의 가장 큰 장점은 2호선 구의역 초역세권 단지로 잠실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뛰어난 도로교통망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인근에 동서울종합터미널도 위치하고 있다.

뛰어난 교통망뿐만 아니라 최고 48층에 달하는 초고층 브랜드 주거시설로서

한강변 조망도 가능한 만큼 향후 광진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일반분양은 ▲74㎡ 88가구 ▲84㎡ A 195가구 ▲84㎡B 44가구 ▲84㎡C 18가구 ▲84㎡D 16가구 ▲101㎡A 84가구 ▲101㎡B 26가구 ▲101㎡C 24가구 ▲124㎡ 44가구 ▲138㎡ 90가구 ▲125㎡ P 2가구 등 중소형 주택부터 중대형과 펜트하우스 등 다양하다.

인근 다양한 개발호재들로 뛰어난 미래가치도 점쳐진다. 먼저 건대입구역~구의역~강변역까지 3.8km 지상철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2040 서울도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추진중에 있다. 주거환경 및 도시 미관 개선이 기대된다.

여기에 동서울터미널도 현재 규모의 12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판매 및 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 사업'도 2024년 착공 예정이다.

건본주택은 서초구 서초동 르엘갤러리 내에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 1533-1616



줄어든 아 장기적 집값 알짜단지

아파트 분양시장이 성수기를 맞았지만 최근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각 건설사가 펼치는 중이다. 특히 재개발·가트 신규사업 자체를 줄이고 있다. 공급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2년 만에 다시 아파트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에 나설 볼수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선 미래가치를 따져보고, 자금조달



설악산 인접... 인근에 양양역 신규 개통

양양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금호건설

금호건설은 강원 양양군 양양읍 구교리 일원에 들어서는 '양양 금호어울림 더 퍼스트' 59~129㎡ 279가구를 분양한다.

세부적으로 ▲59㎡ 48가구 ▲84㎡A 118가구 ▲84㎡B 41가구 ▲84㎡C 44가구 ▲84㎡D 25가구 ▲99㎡ 1가구 ▲전용 119㎡ 1가구 ▲129㎡ 1가구 등이다. 한국자산신탁이 시행을, 금호건설이 시공을 담당한다.

'양양 금호어울림 더퍼스트'는 양양 남대천과 설악산 국립공원이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양양 남대천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 자연 생태계가 복원되는 동시에 주민들의 운동 및 휴식공간으로 거듭났다. 이와 함께 주변에 양양 종합운동장, 현산공원 등 다수의 공원 및 운동시설이 위치해 있다.

단지 인근에는 서울~양양 고속도로가 위치해 있다. 여기에 동해고속도로를 비롯한 7번 국도, 44번 국도와 인접

해 전국 주요 도심으로 이동하는 것도 수월하다. 이와 함께 양양국제공항과 양양종합여객터미널 등도 근처에 자리해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단지 인근에는 동해북부선 양양역(예정)이 신규 개통될 예정이다. 동해북부선은 강릉을 출발해 양양, 속초, 고성을 거쳐 제진까지 연결되는 111.7km의 단선 전철이다. 이 가운데 양양역(예정)은 양양읍 송암리 일대에 조성될 예정으로 양양종합버스터미널과 인접해 있다.

낙산도립공원 해제지역에 따른 수혜도 기대된다. 지난 2020년 강원도는 이곳의 상업지역 내에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1300% 이하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곳은 1980년대에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그동안 개발이 제한된 바 있다.

혁신평면도 도입된다. 전용 59㎡에는 알파룸이 조성될 예정으로 주거공간의 실용성을 더할 계획이다.

한편 건본주택은 강원도 양양군 연창리에 마련될 예정이다. ☎ 1800-7640



우수한 교육환경... 중도금 무이자 제공

대구 내당지구 두류스타힐스 서희건설

서희건설이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지구에 들어서는 '두류스타힐스'를 일반분양 중이다. 서희건설이 책임시공을 맡은 두류스타힐스는 지하 4층~지상 49층 아파트 6개동과 지하 4층~지상 36층 오피스텔 1개동 등 7개동 규모다. 84㎡ 아파트 201가구를 공급한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최근 금리 인상 여파와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으로 분양시장이 침체된 상태"라며 "해당 단지는 우수한 상품성과 중도금 무이자, 계약금 1500만원 정액제 조건 등이 제공된다"고 말했다.

반경 1km 이내에 두류초등학교, 경운중학교, 달성고등학교 등 9개의 초·중·고교가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한 편이다. 또한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서문시장, 서구청,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각종 생활인프라가 풍부하다. 대구 최대 녹지 공간인 두류공원을 비롯해 내당공

원, 강상못공원 등 공원 시설도 많다.

남향 위주의 세대 배치와 5베이(BAY) 설계(일부 호실)가 도입돼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주방 팬트리 및 대형 슬라이딩 욕실장 등 공간 활용을 높인 설계로 여유로운 주거 생활이 가능한 것도 장점이다. 일괄 소등 스위치와 스마트 디지털 도어록, 홈 네트워크 등 입주자의 편의를 극대화시켜 줄 첨단 시스템도 도입된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매출 1조4377억원, 영업이익 2061억원을 기록했다. 건설업계가 수익성 악화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발판으로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장을 선도하는 서희건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 친화형 첨단 주거공간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또한 발전, 환경, 에너지, 각종 시설관리 등 다방면의 신사업, 그리고 교회·학교·병원을 짓는 특수 건축에 집중하면서 선진화된 기술혁신으로 기업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파트 공급 상승 요인 청약해볼까

아직까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아파트들이 분양 시기를 미루는 등 눈치 채기 어려운 대건축 등 도급사업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주택 수요가 3년 후 아파트 입주 물량이 부족해지거나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알짜 아파트만 한다. 충남 아산과 경기도 광명·평택 신규분양이 예정돼 있다. 수요자 입장에 맞춰 계획을 고민해야 한다.

/이규성 기자 peace@metroseoul.co.kr



부산·창원 있는 광역권 교통 요충지

경남 김해 더샵 신문그리니티 포스코이앤씨

포스코이앤씨(옛 포스코건설)가 경남 김해에서 '더샵 신문그리니티' 1146가구를 선보인다. 타입별로는 ▲84㎡ 652가구 ▲102㎡ 494가구다.

'더샵 신문그리니티'는 포스코이앤씨의 '더샵'과 영어로 각각 녹색과 무한대를 뜻하는 '그린(Green)' 및 '인피니티(Infinity)'의 합성어다. 공원, 녹지 등 자연으로 둘러싸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는 아파트를 상징한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3월 새 사명을 선포하고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본격적인 사업 확대에 나선 만큼 '더샵 신문그리니티'에서 포스코이앤씨의 ESG 경영철학을 담은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세대 내부에 내구성과 친환경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강건재와 자원순환형 마감재를 적용하는 등 탄소중립경영을 실천한다.

단지 인근으로는 용두산과 반룡산이

위치하고 있으며, 대청천과 조만강이 흐르는 등 쾌적한 천변환경도 갖추고 있다. 또한 신문지구 개발과 함께 대청천 수변공원 둘레길(예정)도 들어설 예정이다. 신문1지구는 대도시인 부산과 창원을 잇는 광역권 교통 요충지다. 차량 이용 시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과 제3지선 및 장유IC, 서김해IC, 창원1·2터널 등을 통해 창원 성산구와 부산서구 등 인접 주요 도시로 이동이 쉬운 편이다.

차별화된 설계도 돋보인다.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성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주차장 기둥에 추가적으로 설치되며, 스마트홈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으로 조명, 난방, 가스 차단 및 환기 등을 외부에서도 제어할 수 있고, 승강기 내부 UV-C LED 살균 조명을 설치해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을 제거한다.

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 독서실 및 북카페가 조성되는 에듀존,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는 퍼블릭존 등 다채롭게 구성했다.



아산 IC 수혜... 트리플 역세권도 예정

아산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중남 아산시 모종동 아산모종2지구 B1블록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 84~109㎡ 1060가구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별 세대수는 ▲84㎡A 605가구 ▲84㎡B 204가구 ▲84㎡C 175가구 ▲109㎡ 76가구다.

'힐스테이트 모종 블랑루체'가 들어서는 아산모종2지구는 인근 아산모종1지구, 모종셋들지구, 풍기역지구와 함께 약 1만2000여세대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중심에 위치한 단지로 향후 높은 미래가치가 예상된다.

교통 여건은 아산시 숙원 사업인 당진~천안고속도로 구간 중 아산~천안 구간은 2023년말 완공 예정으로 향후 경부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해진다. 그리고 아산IC 진입도로 일부구간은 지난 3월에 개통해 수혜가 예상된다. 단지 3km내 지하철

1호선 온양온천역, 배방역이 위치해 있으며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1.5km 거리에 풍기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에는 하나마트, 롯데마트, 이마트, CGV, 롯데시네마, 온양온천 전통시장, 아산시청, 아산소방서, 아산버스터미널, 아산중무병원 등과 어울림근린공원, 온양천~곡교천, 한마음야구장, 아산 국민체육센터 외에도 온양천 수변 생태공원 조성(2025년 말 예정)과 곡교천 아트-리버파크 통합하천 사업(2032년 예정)도 추진 중에 있다.

단지 내에는 작은도서관, 경로당, 다함께돌봄센터, 게스트하우스, 어린이집,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또 전용면적 84A, 84B 타입은 선호도 높은 4베이, 판상형 구조에 드레스룸, 팬트리룸을 구성해 실용성을 강조했다며 84㎡ 타입을 3개로 다양화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건본주택은 충남 아산시 모종동에 마련된다.



리버뷰·마운틴뷰 갖춘 원주 신주거타운

원주 동문 디 이스트 동문건설

동문건설은 오는 6월 강원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조성하는 '원주 동문 디 이스트' 80·84·115㎡ 873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는 ▲80㎡ 144가구 ▲84㎡ 642가구 ▲115㎡ 87가구다. 원주 도심권과 원주 혁신도시와 가깝다.

먼저 하나마트, 홈플러스, 원주 프리미엄 아울렛, 원주의료원 등 원주 도심에 위치한 각종 생활 인프라 이용이 편리하다. 원주천 산책로가 단지 바로 앞에 있고, 원주 혁신도시 내 버들만이 공원, 삼보공원, 두물수변공원 등이 인접해 있다.

'원주 동문 디 이스트'는 중앙고속도로와 19번 국도가 가깝다. 지난 2021년 개통한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전철 원주역을 통해 서울 청량리역까지 약 1시간대로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원주역에는 여주~원주 복선전철이(2027년 예정) 개통될 예정이다.

관설동을 포함한 남원주권역은 원주의 신주거타운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주 원도심 무실동과 신도시인 원주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 주거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일대에는 지난해 '초혁신도시 반도체유보라 마크브릿지'(476가구)와 '힐스테이트 원주레스티지'(975가구)가 조성 중이며, 향후 '원주 동문 디 이스트'를 포함해 5000여가구의 브랜드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4베이(BAY) 판상형 위주의 세대 설계가 적용됐으며, 팬트리와 드레스룸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일부 가구는 원주천, 치악산, 백운산 등의 조망권을 갖췄다. 단지 외부는 단지 산책로, 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 조경과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코인세탁실, 작은도서관 등의 커뮤니티도 설치될 계획이다.

건본주택은 강원도 원주시 관설동에 6월 중 개관할 예정이다.

☎ 1855-4885



전국서 청약... 분양권 전매도 가능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제일건설

제일건설은 이달 삼성반도체공장이 있는 경기 평택 가재지구 공동2블록에 들어서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 84·103㎡ 1152가구를 분양한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은 전 가구가 남향위주로 4베이(Bay) 판상형 평면 설계와 넉넉한 수납공간이 적용된다.

단지는 100% 지하주차장 설계를 통해 지상에 차가 없는 공원형 단지를 구성하고 다양한 테마가든을 도입한다. 또한 1인 독서실, 스터디룸, 스크린 야구·테니스장, 런드리카페, 피트니스, 사우나, 스크린 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등 고품격 커뮤니티도 마련될 예정이다.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은 가재지구 내 인프라 외에도 홈플러스, CGV, 이마트,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가깝게 위치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단지는 SRT와 1호선이 지나가는

지제역이 인접해 광역교통망이 뛰어나다. 평택지제역은 수원발 KTX 정차,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 선정 등의 호재와 함께 GTX-A, C노선 연장도 추진되고 있다.

평택시 가재동 일원 약 62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3개 블록과 단독주택용지 등을 통해 약 4900세대, 인구 1만2700명이 거주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7개의 공원이 마련되며, 송탄 산업단지와의 주거 분리를 위한 40m의 넓은 완충녹지 4개소도 계획돼 있다.

가재지구 내 공동주택 3개 블록에는 모두 제일건설(주)의 '제일풍경채' 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3개 단지에 걸쳐 총 3701세대가 공급돼 브랜드타운이 만들어진다.

분양관계자는 "지제역 반도체밸리 제일풍경채 2BL은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아파트로, 6개월 후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토이미지

7만전자·10만닉스 기대... 외국인 매수세에 반도체株 훈풍

〈삼성전자 주가 7만원〉

〈SK하이닉스 주가 10만원〉

유진투자·유안타·IBK투자증권
삼성전자 목표가 9만원으로 상향
을 外人 9.1조 순매수, 상승세 주도

SK하이닉스 주가 9만7700원
증권가 “하반기 투자 긍정적”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스시스

반도체주 훈풍 기대감에 따라 삼성전
자·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가 주목
받고 있다. 삼성전자의 주가는 연초 5만
원대에 그쳤으나 현재 7만 원대 탈환을
눈앞에 두고 외국인 등의 매수가 이어
지고 있다. 증권가에서도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의 실적 개선을 예측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의 주가가 7만 원대 문턱에 도착했다.
지난 22일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6
만8500원을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연
달아 갈아치웠다. 외국인 매수세도 그
치지 않아 ‘7만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23일 삼성전자에 대
한 목표가를 기존 8만2000원에서 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승우 유진투
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반도체 산업
전망 보고서를 내고 “여전히 불확실한

매크로(거시경제 환경)와 지정학적 변
수들이 미해결 상태지만 메모리 반도체
는 감소이라는 카드로 충격을 흡수하면
서 업황 반전을 피할 것”이라며 “아직
실적 반등 조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주가 변화는 실적 변화에 선행하기에
조만간 실적도 주가 반등을 따라 최악
의 시점을 통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고 내다봤다. 삼성전자의 2023년 실적
에 대해서는 매출액 276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9%, 77% 감소
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 유안타증권,
IBK투자증권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제시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메모
리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미크
론)가 모두 감소에 동참하면서 공급 과
잉이었던 메모리 수급이 3분기부터 개
선될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
선으로 삼성전자 등의 수혜가 예상된
다”고 예측했다.

연초였던 지난 1월 2일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5500원으로 6만 원에도 못 미
쳤다. 하지만 이후 삼성전자 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감, 일본 정부 차원의 투자금
확정 등으로 반도체 수급 상태 개선이 예
상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난 모
습이다.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이달 23일

까지 삼성전자를 9조1034억 원어치 순매
수하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 1위도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2위
역시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가 이를
올렸지만 1조2314억 원으로 1위인
삼성전자와 약 7배의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3.32% 급등
했던 19일에는 외국인 순매수 금액
6221억 원 중 5262억 원이 삼성전자 순
매수 금액이었다.

이 연구원은 “2월 이후 외국인의 코
스피 순매수액은 4조6000억 원인 반면
삼성전자 순매수액은 6조9000억 원”이
라며 “연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들
은 2020~2022년 팬데믹 기간 삼성전자
주식을 30조8000억 원어치 순매도했으
나 올해 들어서는 5개월간 9조1000억
원어치를 순매수 중”이라고 부연했다.

반도체주 우상향에 따라 SK하이닉
스도 ‘10만닉스’를 바라보며 훈풍을 맞
고 있다. 반도체주 기대감이 상승했던
19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3.95% 상
승하며 9만7300원대로 성급 올라왔다.
다만 SK하이닉스 역시 ‘10만닉스’를
눈앞에 두고 주춤하는 모양새다.

반도체 업황의 우호적인 흐름이 3분

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
권가의 투자의견은 대부분 긍정적이
다. 김복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부진한
수요를 하회하는 공급으로 인해 하반기
부터 (반도체) 재고 소진이 본격화할 것
으로 추정된다”며 “3분기부터는 공급업
체들의 생산이 연초 대비 20% 이상 감
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하량 증가 폭
에 따라 재고 소진 폭도 가속화할 가능
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도 “반도체 수
요회복이 다소 늦어진다고 가정해도 삼
성전자의 20% 이상 감소에 따른 공급축
소 효과만으로도 하반기 글로벌 디램(D
RAM), 낸드(NAND) 수급은 균형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도체
가격 하락 영향으로 글로벌 세트업체들
의 반도체 원가부담도 현저히 낮아져 향
후 채용량 확대에 따른 출하성장을 기대
할 수 있다”고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한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4
일 종가는 각각 6만8500원, 9만7700원
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o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증권사 “개미 모셔라” MTS 재정비 나서

신한투자 ‘신한알파3.0’ 첫 선
현대차증권·하이투자증권도 리뉴얼
한국투자, 투자 MBTI 등 서비스

최근 증권사들이 모바일트레이딩시
스템(MTS)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유형
의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소시에테
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이
후 개인투자자들의 이탈로 인한 수수료
수익 감소 등을 우려한 증권사들이 발
빠르게 MTS 재정비에 나서며 고객 잡
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
권은 지난 23일 새 MTS인 ‘신한알파
3.0’을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신한
알파 3.0’은 고객의 니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만든 플랫폼으로 쉽고 편한 투
자를 할 수 있다.

신한알파 3.0은 보유 종목뿐 아니라
관심 종목, 매매 진행 중인 금융상품에

대한 주요 정보(담보, 유상증자, 배당
등)를 정리해 알람으로 알려줄 뿐만 아
니라 신한투자자 통계를 통해 해당 종
목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 평균 보유
수량, 매수 단가, 관심도, 함께 매수한
종목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현대차증권, 하이투자증권도 이달에
MTS를 리뉴얼했다. 현대차증권은 지
난 16일 기준 ‘THE H Mobile’을 개편
한 신규 MTS ‘내일’을 출시했다. 이번
에 직관적이고 간편한 사용자 환경 및
경험(UI·UX) 구축이 최적화되도록 했
으며, 개인화된 콘텐츠, 다양한 주문 방
식 등으로 MTS 플랫폼의 경쟁력도 확
보했다. 또한 종목 관련 속보, 이슈, 공
시 등 요약 정보 및 특히 기반 분석정보
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투자정
보’도 제공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2일 새 MTS ‘i
M하이’를 개시했다. 4년만에 기존 MT

S를 개편한 것으로 편의성과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오늘은 ‘화면에선 인공
지능(AI) 기반의 분석을 통한 실시간
시장 흐름·주요 종목·투자 키워드를,
'자산은' 화면에선 투자자의 자산 현황
과 보유 종목·관심 종목 등을 한 번에 조
회할 수 있게 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달 구형 MTS
서비스를 종료하고 신형 MTS 체제로 전
환했다. 새 MTS는 주식 투자 패턴을 바
탕으로 투자유형을 분석해주는 ‘투자 M
BTI’ 콘텐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증권사들은 MTS에 새로운 서비스를 속
속 도입하고 있다. KB증권은 지난 3일 투
자자가 직접 주도해 투자의 목적, 투자 성
향 등에 적합한 주식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투자하고 관리할 수 있는 다이렉트인덱싱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일 해외뉴스 실시간 번역· 요약 서비스에
챗GPT를 활용했다. /원관희 기자 wkh@



페플라ستيك으로 만든 친환경 근무복을 착용한 (주)한화 건설부문 직원들이 인천다복마을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주한화 건설부문

친환경 ‘포레나 근무복’ 100여개 현장 도입

(주)한화 건설부문, 100% 재활용 제자

(주)한화 건설부문은 친환경 소재로 만
든 ‘포레나 근무복’을 전 현장에 도입해
자원 순환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
다고 24일 밝혔다.

(주)한화 건설부문은 페플라ستيك을 업
사이클링해 만든 근무복을 100여개의
건설현장에 지급한다. 흑서기를 맞아
지급하는 이번 포레나 근무복은 폐기물
을 재활용한 ‘100% 재활용 폴리에스터
(Recycled polyester)’로 제작됐다.

재활용 폴리에스터의 주 재료는 버려
지는 플라스틱 PET병과 카페 일회용
컵, 필름 등으로, (주)한화 건설부문은 임
직원과의 접점이 가장 많은 근무복에
환경 친화적 소재를 적용함으로써 친환
경 의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자원순환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도입
된 포레나 근무복은 일반 소재에 비해
섬유 제조공정이 단순해 생산 에너지를
약 60%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김대환 기자 kdh@

SK(주), 회사채 6000억 자금조달 성공

수요예측에 모집액의 6배 몰려
개별 민평금리보다 낮은금리 발행

회사채 시장 큰손인 SK(주)가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모
집액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이 몰리며 자
금 조달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23일 공시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SK(주)는 최초 모집액 3000억원의 두배
인 6000억원을 개별 민평금리 보다 낮
은 금리로 발행하는데 성공했다.

3년물 1500억원 -7bp, 5년물 2900

억원 -10bp, 7년물 1100억원 -20bp,
10년물 500억원 -45bp로, SK는 지난
2월 흥행에 이어 또 한번 개별민평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했다.

SK(주)가 당초 모집 신고한 금액은
3000억원이었으나 19일 진행된 수요예
측에 모집액의 6배에 가까운 1조7800억
원의 자금이 몰리면서 회사채 발행 금
액을 6000억원까지 늘렸다.

SK(주)는 지난 2월에도 수요예측 흥
행에 힘입어 모집액인 3000억원을 초

과한 3900억원의 회사채 발행에 성공
했다.

SK(주)는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마
련한 자금 모두를 기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SK(주)는 1700억원을 회사채 상환에,
4300억원을 단기 기업어음증권 상환에
사용한다.

SK(주)관계자는 “총차입금은 기존 수
준을 유지하되 단기 차입금을 장기 회
사채로 변경함으로써 회사의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단기 차입금 규모 축소 등 재무 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DL이앤씨, 챗GPT 기반 ‘디보이스’ 구축

고객 상담내용 텍스트 전환·전송

DL이앤씨는 대화형 인공지능(AI)인
챗GPT(ChatGPT) 기술을 적용한 고객
응대 관리시스템 ‘디보이스(D-VOIC
E)’을 구축했다고 24일 밝혔다.

DL이앤씨는 자체 개발한 빅데이터
기반 데이터플랫폼인 ‘디레이크(DLak
e)’에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협업으
로 챗GPT 4.0 버전 기술을 적용, 새로

운 고객응대 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시스템은 직원들이 직접 상담
내용 전체를 파악하고 일일이 주요 키
워드를 선별한 뒤, 요구사항을 분류하
고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상담 내
용이 음성에서 텍스트로 자동 전환되
고 개인정보를 제외한 내용이 챗GPT
로 즉시 전송돼 1분 이내 요약이 이뤄
진다. /김대환 기자

김수미

정경순

김서라

뮤지컬

친정엄마

세상에 하나뿐인 내편
가슴 저미는 먹먹한 이름



디큐브아트센터

2023.03.28~06.04

작가|고혜정 연출|김재성 음악감독|허수현 안무감독|김수한 무대디자인|김상민 조명디자인|최신영 음향감독|정호진 영상디자인|박준 소품디자인|권민희 의상감독|김혜민 분장|최기웅 제작무대감독|서정민 무대감독|김모서 무대조감독|이종건 제작피디|안숙녀



NAVER 뮤지컬 친정엄마



INTERPARK 티켓링크

주최

SUK! COMPANY

TV CHOSUN

문의 : 070-4179-1775

대전, 교통혼잡 개선 ‘트램-시내버스’ 혼용차로 생긴다

트램이용하다가 시내버스 환승 도로 폭 좁은곳 교통혼잡도 해소 트램건설·운전 등 개정 추진 중

대전에 트램과 함께 시내버스가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혼용차로가 놓일 전망이다. 혼용차로가 생기면 트램을 이용하다가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환승이 편해질 수 있다. 도로 폭이 좁아 발생하는 교통 혼잡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전시 '2023년 규제혁신 과제 발굴 보고회'에 따르면 대전시는 올해 75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개선에 나선다. 구체적으로, 중앙부처 건의사항 63건과 지자체 개선사항 12건이다.

우선, 대전시내에 트램인 노면전차와 시내버스가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가 깔릴 예정이다. 현재, 혼용차로 운영을 위한 트램



민선8기 역점사업 규제혁신 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는 이택구 대전시 행정부시장. /대전시

건설, 운전 등에 관한 규칙 및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에 따라 트램 전용차로 설치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혼용차로 설치 가능하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혼용차로가 놓이면 시민들이 트램을 타다가 시내버스로 갈아타는 환승편의를 누릴 수 있다. 도로 폭 협소 구간의 교통 혼잡도 해소될 수 있고, 한정

된 도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도 가능해진다. 대전시는 내년 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착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관련 협의 중이다.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정책과,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 등과 논의 중이다. 민간투자가 필수인 상황에서 대전시는 전철 등 도시철도사업에 민간기

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대 부속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도시철도 민간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선 역세권 주변 개발 사업을 허용하고, 사업 우선권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발 이익은 도시철도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해 정부의 재정 부담도 완화한다. 대전시 도시철도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도시철도(전철) 민간 투자사업은 수요가 많고, 사업성 확보가 쉬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는데 대전처럼 지방은 민간의 도시철도 투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도시철도 설치 요구가 많지만,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사업성 확보 등이 어려워 재정 부담이 적은 민간사업으로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남해군

'적극행정' 행안부 모범 사례 선정

남해군이 추진해 대내외적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는 '마을자치규약 표준안' 정책이 행정안전부의 '2023년 1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규제 해소사례'로 선정됐다. 남해군은 지난 1월 관내 각종 단체와 마을에서 운용중인 정관·규약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해 배포했다. 관내 마을 및 단체에서 운용 중인 일부 규약의 불합리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해 온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남해(경남)=이도식 기자

전남도

남도음식명인 4명 추가 선정

전남도는 남도음식 보존과 계승·발전을 주 도할 남도음식명인 4명을 추가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남도음식명인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등으로 2017년 이후 명인 추가 선정이 없던 상황에서 남도음식명인과 음식경연대회 수상자의 수요를 반영해 추가 선정했다. 남도음식명인 자격 요건은 5년 이상 전남 거주자 중 남도음식경연대회 5회 이상 참가,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전시·경연 분야 대상 또는 최우수상을 2회 이상 수상한 도민이다.

/무안(전남)=양수영 기자

구미시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경북 구미시가 이차전지 대표도시로 도약한다. 구미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차전지 소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28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센터가 완공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산동읍 신당리(구미 4공단 확장단지) 8000㎡(240여평)에 조성된다.

소재공정·분석 지원동(3100㎡)과 셀제조·성능평가 지원동(576㎡) 등 2개 동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구미(경북)=김상복 기자

산청군

'농촌'서 살아보기 운영

산청군은 '2023년 농촌에서 살아보기'를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나 생활환경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해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산청군은 농촌에서 살아보기 우수체험마을인 지리산 덕천강마을을 사업 운영마을로 선정해 이달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리산 덕천강마을의 주요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딸기 수제비 만들기, 전통 천연염색 체험 및 짚공예 체험 등이 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버스타고 '나주' 한바퀴 시티투어 4년 만에 재개

11월12일까지 매주 토요일 등 운영 문화해설사 동반 주요관광명소 탐방

매주 주말 버스 타고 나주시 대표 관광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나주시 시티투어가 4년 만에 재개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나주시 시티투어를 오는 11월 12일까지 운영한다.

나주시 시티투어는 문화해설사와 함께 버스를 타고 나주의 주요 역사문화, 생태경관 명소를 하루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관광상품이다.

매주 토요일 역사문화체험 중심의 정기코스와 둘째 주 일요일 '힐링코스', 넷째 주 일요일 '포토스팟 코스' 로 테마별 여행 노선을 다채롭게 구성했다. 운행 시간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5시 5분까지로 모든 코스가 동일하다.



나주시 시티투어, 반남고분군. /나주시

특히 올해부터는 수도권 관광객 유치와 이용 편의를 위해 전체 코스 출발점을 기존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에서 KTX나주역으로 변경했다.

매주 토요일 정기코스는 KTX나주역에서 출발해 '국립나주박물관-나주읍성권-황포돛배-천연염색박물관-북암리고분전시관-KTX나주역' 순으로 운행한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경남, '행정통합 추진' 시·도민 여론조사

5월 말, 6월 초 총 2회 실시

경남도와 부산광역시는 '부산-경남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양 시·도민 여론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2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여론조사는 경남과 부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5월 말과 6월 초에 걸쳐 총 2회 유·무선 전화면접조사로 실시될 예정이다.

1회당 2000명을 표본으로, 경남도와 부산시민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번 여론조사는 행정통합 절차의 본격 추진에 앞서 양 시·도민의 의견

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앞서 경남도와 부산시는 행정통합 추진 계획과 여론조사의 추진 일정 및 문항에 대해 실무추진위 개회를 통해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고, 전문가 자문까지 완료한 상태다.

설문 문항은 인적사항과 현안설문으로 구분되어, 행정통합에 대한 인지 여부와 찬반 의견 및 사유에 대해 묻는다.

경남도와 부산시는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시·도민의 뜻을 확인한 이후 행정통합 절차 추진 여부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창원(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경북, 직업계고 '외국인 입학생' 받는다

내년 3월 베트남·필리핀 등 신입생 경북도내 직업계고등학교가 내년 3월부터 국내 최초로 외국인 입학생을 받는다.

24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3월 ▲신라공고(경주) 베트남 학생 12명 ▲의성유니텍고 필리핀 학생 8명 ▲경주정보고 베트남 학생 12명 ▲경주여자정보고 베트남 학생 8명 ▲한국해양마이스티고(포항) 인도네시아 학생 4명 ▲한국국제제리고(영주)·한국철도고(영주) 각각 몽골 학생 4명 등 7개 학교가 해외 4개국에서 모두 52명의 외국인 신입생을 맞는다.

경주여자정보고는 정원 외로, 나머지 학교들은 정원 내 선발이다.

직업계고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경북교육청이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신입생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학교의 정원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도내 시군에 이들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모집절차에 들어가 합격자가 정해지는 대로 학교별로 한국어 교육, 기숙사 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안동(경북)=김상복 기자 ksb8100@

부산, 영화도시 프랑스 칸과 업무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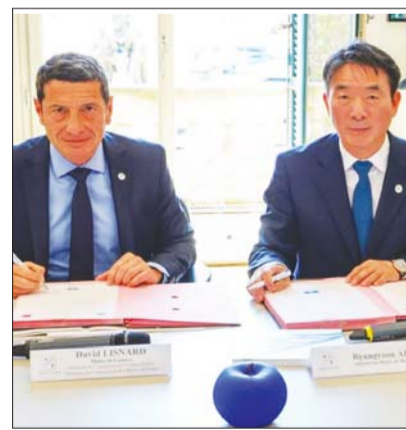
영화인력양성·상호교류 증진 합의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이자 세계적인 국제 영화제의 도시인 부산시와 프랑스 칸이 두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프랑스 칸(Cannes)과 지난 22일(현지 시각) 영화 인력 양성 및 영화 관련 상호 교류 후조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의 개최 도시 '부산'과 세계 최대 영화 축제 칸 영화제의 개최 도시 '칸(Cannes)' 모두 '유네스코 영화 창의 도시'로, 두 도시는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급변하는 영화·영상 콘텐츠 산업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다비드 리나드(David Lisnard) 프랑스 칸 시장과 앞으로 유네스코 영화 창의도시 간 단편영화 제작 및 공작



/부산시

발원조(ODA) 사업 공유 등 영화 관련 여러 분야에 대한 교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유네스코 창의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와 자랑거리, 애착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촉진해 새로운 문화에 자극과 투자를 초래하고, 창조적 문화 활동과 혁신적 산업 활동의 연결을 통해 지역을 건강하게 하는 도시를 말한다.

/부산=김영환 기자 metrobusan3@

“예술작 감상에 테니스·골프 체험까지… 고객 발길 잡아요”

백화점, 쇼핑 넘어 문화공간으로

더현대서울 ‘佛’ 국립현대미술관전
전기요정 등 작품 130여점 전시

롯데백 8월6일까지 JR 개인전
6개점서 테니스 ‘더 코트’ 팝업

신세계백 강남점에 골프관 운영
체험 후 구매 가능한 시타실 갖춰



신세계면세점 명동점에서 미디어 아트 영상 ‘형형색색의 시간, 빛나다’를 관람하고 있다. /신세계디에프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테니스메트로 전경. /롯데쇼핑

백화점들이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외식·엔터테인먼트·휴식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팝업스토어와 유명 F&B를 입점시켜 고객 체류시간을 늘리는 것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백화점들이 고가의 미술 작품을 백화점에 전시하는 아트 마케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이미지를 각인시켜 백화점으로 발걸음을 유도하는 것이다.

먼저, 더현대서울은 조르주 풍피두 국립 예술문화센터와 함께 ‘프랑스 국립현대미술관전: 라울 뒤피, 행복의 멜로디’ 전시회를 9월6일까지 진행한다. 루브르박물관, 오르세미술관과 함께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꼽히는 풍피두센터가 국내 백화점에서 특별전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회에서는 풍

피두센터에서 소장 중인 라울 뒤피의 역작 ‘전기요정’을 비롯해 ‘프랑스국립현대미술관’ 오리지널 작품 13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은 ‘아트 경영’ 전략 하에 유명 미술 작품 전시에 공을 들여오고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진행한 특별전 ‘다비드 자영: 프로방스에서 온 댄디보이’도 그 일환이다.

롯데백화점은 2021년 제1회 ‘아트 롯데(ART LOTTE)’를 개최하면서 아트 비즈니스에 출사표를 던진 뒤 롯데지주내 디자인경영센터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시그니엘 부산에서 ‘롯데아트페어부산2023’도 개최했다.

또한 2018년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7층에 현대 미술관 ‘롯데뮤지엄’ 개관 후

국내 신진 작가들을 전폭 지원 중이다. 롯데문화재단은 연간 약 200억원 규모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현재 롯데뮤지엄에서는 세계적인 아티스트 제이알(JR)의 국내 첫 대규모 개인전 ‘JR: CHRONICLES’가 열리고 있다. 오는 8월 6일까지 만날 수 있는 이 전시는 도시의 건물과 거리를 캔버스와 갤러리 삼아 활동해온 세상을 바꾸는 사진작가 제이알의 20년의 행보를 조망한다.

신세계그룹은 백화점·면세점·가구 판매점 등에 문화예술 콘텐츠를 접목시키고 있다. 신세계 리빙&라이프 스타일 기업인 신세계까지는 ‘아트살롱’ 공간을 선보이고 있으며, SSG닷컴은 예술 작품을 한 데 모은 ‘갤러리’ 페이지

를 신설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불거리를 제공 중이다.

백화점 업계 한 관계자는 “주요 백화점들이 문화·예술 콘텐츠에 힘을 주는 이유는 구매력이 큰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며 “또한 아트 경영을 통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과 재미를 선사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체험형 매장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테니스 열풍이 불고 있는 것에 착안해 오는 29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 인천점, 동탄점, 수원점, 부산본점, 프리미엄 아울렛 타임빌라스 등 6개점에 테니스 게임을 치고 레슨까지 받을 수 있는 팝업 ‘더 코트(The Court)’를 연다. 지난해 6월 잠실 롯데월드

몰에서 진행해 10일 만에 20만명이 방문하며 큰 인기 모았던 팝업스토어를 백화점과 아울렛까지 확대한 것이다. 테니스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 롯데는 잠실 롯데월드몰점에 테니스 성지도 만들었다. 업계 최초 테니스 전문 매장인 ‘테니스메트로’는 체험 콘텐츠를 강화해 테니스 마니아들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강남점 골프관을 지난 2월 재단장해 운영 중이다. 백화점 업계에서 유일한 직영 골프 매장일 뿐더러 제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구매할 수 있는 ‘시타실’도 갖췄다.

신세계는 시타실에 볼탄도 추적기 ‘트랙맨’을 도입했다. 미국프로골프(PGA) 등에서 선수들의 스윙 분석용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고객의 체계적인 스윙 분석이 가능하다. 이에 강남점 골프 전문관은 오픈 한 달 동안 전년 동기 대비 35.8%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 점포 골프 장르 매출 성장률(14.1%)보다 두 배가 넘는 결과다.

업계 관계자는 “오늘날 백화점은 불거리가 있고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며 “온라인몰은 시도할 수 없는 백화점만의 경쟁력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공략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이마트24, 10대 의견 반영 FF상품 만든다

(유통기한이 24시간인 상품)

청소년비즈니스쿨 솔루션 과제선포식
실무자 멘토링, FF 공장 투어 후
8월 말 과제 아이디어 발표 예정

이마트24가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성암아트홀에서 개최된 ‘2023년 청소년비즈니스쿨 솔루션 과제선포식’에 참여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소년비즈니스쿨(비즈니스와 스쿨의 합성어) 솔루션’은 기업이 인식하는 사회 문제를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벤처부와 창업진흥원의 주관으로 이마트24 등 7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는 경진대회이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이마트24는 ‘10대들을 위한 편의점 FF(Fresh Food)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과제로 제시했다. FF상품은 통상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유통기한이 24시간인 상



최은용 이마트24 MD·마케팅 담당 상무(왼쪽 네번째), ‘2023년 청소년비즈니스쿨 솔루션 과제선포식’에 참여해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품으로 삼각김밥,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뜻한다.

이마트24는 최근 10대를 중심으로 가성비 있는 편의점 FF상품의 수요가 증대하는 가운데, 맛있으면서도 건강한 편의점 식품 소비라는 인식의 전환과 상품 개발 및 마케팅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 소비층인 10대들에게 직접 듣고

자 본 과제선포식에 참여하게 됐다.

이마트24의 과제 해결자로 선정된 청소년팀은 이마트24MD 및 마케팅 실무자의 멘토링과 FF 제조공장 현장 투어, 아이디어 고도화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말에 최종적으로 해당 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SSG닷컴 브랜드 앰배서더 활동 돌입

‘SSG메이트’ 발대... 브랜드 가치 전달

SSG닷컴이 선발한 첫 브랜드 앰배서더가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일상과 맞닿은 SNS 콘텐츠를 통해 브랜드 핵심 가치를 알린다는 계획이다.

SSG닷컴은 지난 23일 본사 센터빌드에서 브랜드 공식 일반인 앰배서더 ‘SSG 메이트’ 발대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SSG 메이트’는 선발 과정에서 100대 1이 넘는 뜨거운 경쟁률을 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SSG닷컴은 지원자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선발했으며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군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약 세 달 간 쓱닷컴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며 핵심 가치인 ‘신뢰’ ‘프리미엄’을 고객에게 친근하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일상 속에서 SSG닷컴과 함께하는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제작하며, 온·오프라인 브랜드 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SSG닷컴이 일반인 대상 앰배서더 활동을 시작한 것은 고객 관점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객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강력한 팬덤을 형성해 브랜드 가치관을 공유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해 간다는 방침이다. /이세경 기자

‘식신e식권’ 공공기관 등 가맹점 5만여 곳

고객사 880곳, 하루 23만명 이용

푸드테크기업 식신은 ‘식신e식권’의 공공기관 도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식신e식권은 스마트폰으로 편리하게 주변 식당을 비롯한 편의점, 구내식당까지 식대를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식권 서비스다. 현재 880개 고객사, 하루 23만명의 직장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약 5만곳에 달한다.

식신e식권은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성을 완벽하게 갖췄으며, 갑작스러운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도 문제없이 처리하는 ‘AI 오프라인 결제’ 등의 특별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취득해 가입자 정보보호, 운영보안, 침해사고 관리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보호 측면에서 안정성이 검증됐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농심 포테토칩 ‘잭슨페퍼로니맛’ 선포

농심이 스낵 신제품 ‘포테토칩 잭슨 페퍼로니맛’을 새롭게 출시했다. 잭슨 피자는 미국식 피자의 맛을 제대로 구현했다는 평을 받으며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제 피자 프랜차이즈다.

포테토칩 잭슨페퍼로니맛은 포테토칩에 잭슨피자의 인기 메뉴 중 하나인 페퍼로니 피자맛을 입힌 제품이다. 포테토칩 특유의 고소한 맛과 짭짤한 페퍼로니 맛의 조화가 특징이다. /신원선 기자

사조대림 ‘오일 스프레이’ 3종 출시

튀김부터 샐러드까지 활용도 높아

사조대림은 분사형으로 사용이 간편한 해포 ‘오일 스프레이’ 3종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해포 오일 스프레이는 원재료에서 추출한 맑고 신선한 오일을 사용이 간편한 분사형 용기에 담은 제품이다. 에어프라이어 조리 시 붓으로 기름을 바르는 번거로움 없이 스프레이를 분사해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오일을 쓸 수 있다.

이번 신제품은 올리브유, 포도씨유, 해바라기유 3종으로 출시되어 튀김부터 샐러드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다. 부침개처럼 식감이 중요한 요리

에 뿌려 한층 더 바삭한 식감을 완성하거나 재료에 골고루 오일 드레싱을 입힌 훌륭한 샐러드를 만들 수 있다.

빛과 공기를 완벽하게 차단해 산패 걱정 없이 맛과 향이 처음처럼 유지되는 것도 장점이다. 식용유 업계 최초로 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취득하고 24년 연속 브랜드 파워 1위를 수상한 해포 제품이기에 품질을 더욱 믿을 수 있다.

사조대림 마케팅 장윤석 담당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산패, 변질 등의 문제로 대용량 식용유를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소비자들을 위해 처음 그대로 품질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셀트리온, 'CT-P17' FDA 허가 획득... 7월부터 美 판매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고농도 제형 진출 관심 높아져
휴미라, 전년 27.6조 매출 기록
美 시장서만 글로벌 매출 87%

셀트리온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CT-P17'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3일(현지시간)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를 통해 유플라이마는 류마티스관절염(RA), 염증성장질환(IBD), 건선(PS) 등 오리지널 의약품인 휴미라가 보유한 주요 적응증들에 대해 7월부터 미국 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유플라이마는 저농도 대비 약물 투여량을 절반으로 줄인 고농도 제형으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트르산염

(구연산염)을 제거한 것이 특징이다. 아달리무맙은 미국을 중심으로 고농도 제형으로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어,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의 시장 진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심포니헬스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달리무맙의 약 85%는 고농도 제형이 차지하고 있다.

휴미라는 블록버스터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기준 약 212억3700만 달러(약 27조608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최대 시장으로 꼽히는 미국 시장에서만 글로벌 매출의 87% 이상인 약 186억1900만 달러(약 24조2047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셀트리온은 유플라이마의 글로벌 공

급을 담당하는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미국내 시장 점유율 조기 확보에 힘쓰는 동시에, 유플라이마의 추가 경쟁력을 확보해 차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과 유럽에 유플라이마와 휴미라 간 상호교환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임상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품목허가를 통해 유플라이마가 아달리무맙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고농도 제형 바이오시밀러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협의를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동국제약, '정맥순환장애 캠페인' 진행

동국제약이 24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정맥순환장애의 방치율을 낮추기 위한 '센시아와 함께하는 정맥순환장애 바로 알기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혈관 진료특성화로 국내 최고 병원 도약”

이대서울병원 개원 4주년 기념식
부동의 전국 1위 응급의료센터
뇌·동맥혈관병원 차례로 열어



지난 23일 열린 이대서울병원 개원 4주년 기념식에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김은미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등 외빈들과 유경하 이화여자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하은희 이화여자대학교과대학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기 위해 최근 이대혈관병원을 설립했다. 이대뇌혈관병원이 5월 22일 진료를 개시한데 이어 6월 중순에는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문을 연다.

이대서울병원은 진료특성화와 전문화를 통해 국내 최고병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임 병원장은 “혈관질환 치료분야에서 축적된 풍부한 임상경험과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혈관 치료하면 이대혈

관병원’라는 공식이 세워져 이대서울병원의 브랜드 파워를 높이는데 일등공신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대서울병원의 잠재력은 아직 폭발하지 않았다. 철저한 감염관리, 고난이도 중증질환 특화, 스마트병원의 대표주자로 손꼽히는 이대서울병원은 현재의 상승에 만족하지 않고 도약의 기회를 자양분으로 더 높게 날아오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세경 기자

더카페
‘세이 치즈’ 주제로 선보는
애슐리퀸즈 시즌 신메뉴

이랜드이츠의 ‘더카페’(THECAFFE)가 애슐리퀸즈와 협업한 치즈 시즌 신메뉴를 출시한다.

‘세이 치즈’(Say Cheese)를 주제로 선보이는 더카페의 치즈 시즌 신메뉴는 치즈 음료 3종과 치즈케이크 1종으로 구성된다.

대표 메뉴 ‘애슐리치즈케이크프레스치노’는 스무디와 애슐리 치즈케이크가 만난 음료로, 어디서든 맛볼 수 없는 ‘단짠조함’을 선사한다.

함께 출시한 ‘애슐리황치즈라떼’는 크림치즈라떼에 황치즈소스가 더해져 고소함과 달콤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으며, ‘애슐리크림치즈라떼’는 마스카포네 치즈만의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던킨,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 3종

도넛 모양 파츠·키링 고리 구성

SPC비알코리아가 운영하는 던킨이 글로벌 캐릭터 기업 ‘산리오’의 ‘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해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 3종을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 3종은 산리오의 인기 캐릭터인 ‘마이멜로디’, ‘쿠로미’, ‘시나모롤’의 얼굴 모양을 그대로 활용한 귀여운 미니 파우치로, 캐릭터별 특징에 맞춘 도넛 모양의 파츠와 키링 고리가 함께 구성되어 있다. 블루투스 이어폰, 동전 등 작은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는 파우치이다.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는 오는 25일부터 전국 던킨 매장에서 1만 2000원 이상 구매 시 4500원에 구입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던킨은 이달 초부터 ‘산리오캐릭터즈’와 협업한 굿즈를 선보이고, 사전 예약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첫 번째 굿즈인 ‘산리오캐릭터즈 멀티 케이스’에 이어 출시하는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는 지난 18일 실시한 사전 예약 프로모션에서 예약 수량 전량이 당일 매진되며, 24일 까지 진행하려던 사전 예약 프로모션이 조기 마감되는 등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비알코리아 던킨 관계자는 “이번에 선보이는 산리오캐릭터즈 미니 파우치는 작은 소지품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키링이나 가방 고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굿즈”라며 “이달 초 선보인 산리오캐릭터즈 멀티 케이스에 이어 이번 굿즈에도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원씽, 남성 위한 편리한 피부 관리 제품

‘포맨 올인원 2종’ 출시

애경산업 자회사인 ‘원씽’(ONE THING)에서 피부 관리에 신경 쓰는 남성들을 위한 ‘포맨 올인원 2종’을 출시했다.

원씽 포맨 올인원 2종은 땀으로 인한 피지 분비와 잦은 면도 등으로 인해 민감해진 남성 피부를 관리해주는 제품이다. 특히 번거로운 화장품 사용 단계를 줄여 간편하면서도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

원씽 포맨 올인원 2종은 남성들의 건강한 피부 관리를 위해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포맨 올인원 수분 에센스’,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한번에 케어가 가능한 ‘포맨 올인원 데오 워시’로 구성됐다.

원씽 포맨 올인원 수분 에센스는 건



원씽(ONE THING), 포맨 올인원 2종.

조하고 민감한 남성 피부에 맞춰 토너, 로션, 에센스, 크림을 한 병에 담은 4in1 효과의 기초화장품이다.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 용암 해수’를 40.7% 함유해 피부 수분 및 영양 공급에 도움을 준다. 또한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판테놀’과 피부 보습에 효과적인 ‘3중 히알루론산’ 등을 함유해 피부결을 촉촉하게 관리해준다. /이세경 기자

비타민 함유된 ‘박카스맛 탱글 젤리’

동아제약, ‘디몰’서 출시 기념 행사

동아제약은 박카스맛 탱글젤리를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보인 박카스맛 탱글젤리는 상품 명 그대로 탱글한 식감이 특징인 젤리로, 1봉지(40g)당 콜라겐 350mg과 비타민 B군 3종(B1, B2, B6)을 함유한 프리미엄 젤리다.

동아제약은 박카스맛 탱글젤리 출시를 기념해 공식 브랜드몰인 ‘디몰(:Dmall)’에서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동아제약 ‘박카스맛 탱글젤리’.

배송비 3000원만 지불하면 박카스맛 탱글젤리 2봉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세경 기자

스타벅스, ‘랜더스벅 유니폼’ 재출시

큰 인기에 판매 수량 1000장 늘려

스타벅스코리아가 오는 26일 SSG 랜더스 구단과 협업한 ‘랜더스벅 유니폼’을 재출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4월 출시한 ‘랜더스벅 유니폼’은 스타벅스 고유의 그린 컬러인 그린/스트라이프와 민트 2종으로 다양성을 높였다. 지난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인천SSG랜더스필드에서 진행된 ‘스

타벅스 데이’ 행사 당시 선수단이 ‘랜더스벅 유니폼’을 직접 착용하고 경기를 진행해 야구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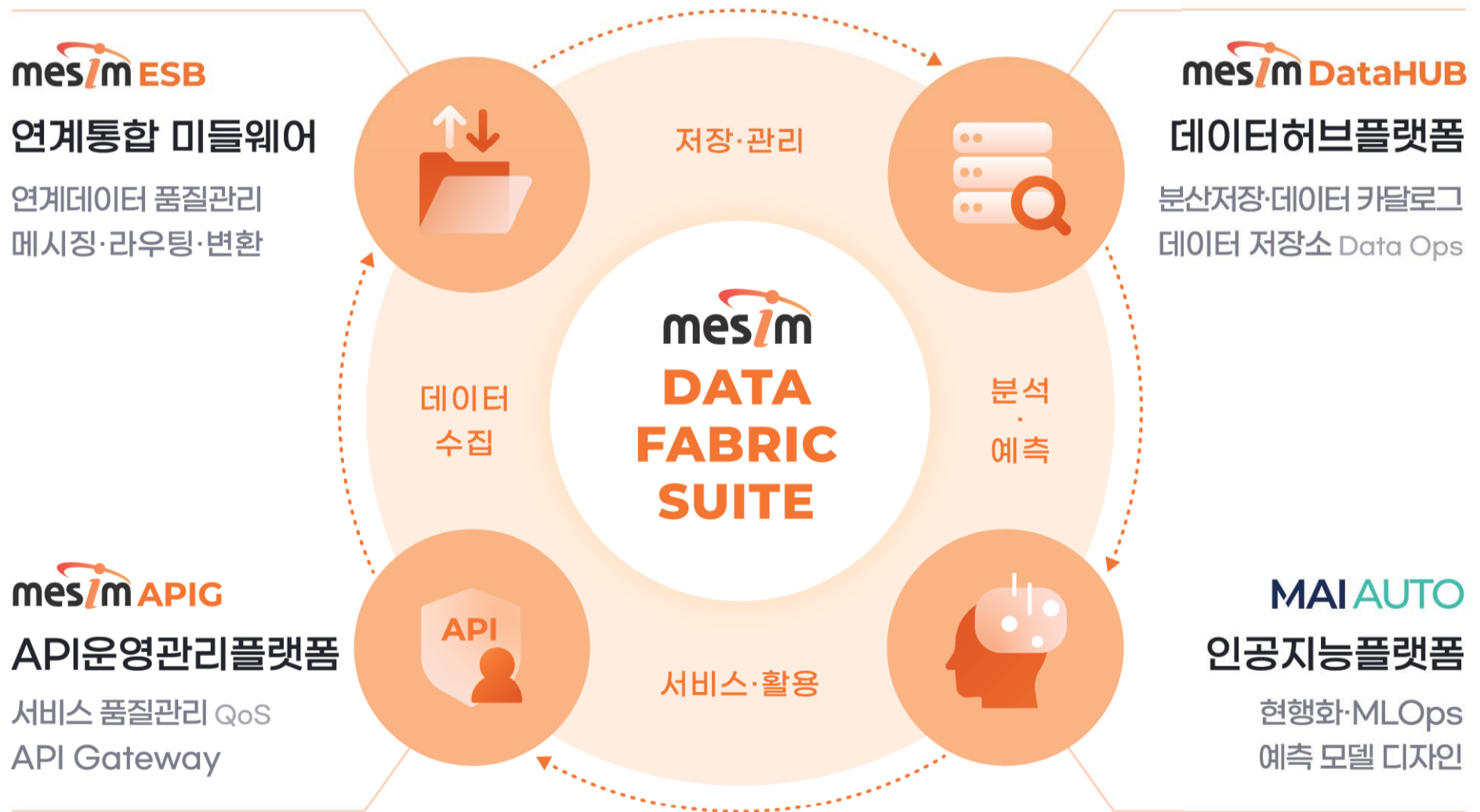
스타벅스는 5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스타벅스 앱 내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랜더스벅 유니폼’을 2차 판매한다. 지난 1차 판매 수량보다 1000장 증가한 총 2000장을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데이터 연계통합(ESB/IoT/망간) SW 3,000여 기관 공급
최고 품질·성능·실적·기술



DX 및 지속가능 데이터 수집·분석·활용을 위한 Data end2end 기반 핵심기술

DATA FABRIC SUITE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수급대상 예측 서비스 #한국도로공사 디지털트윈기반 교통상황시스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계기관 시스템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통 빅데이터 분석 표출 시스템
#행정안전부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감염병 대응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등



KB국민은행-해수부, 해양생태계 보전 맞손

KB국민은행이 해양수산부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수산부와 함께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KB 바다숲 프로젝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



대한항공, 지역사회 어린이 초청... 격납고 활짝

대한항공이 24일 국립항공박물관과 함께 지역사회 어린이들을 위한 항공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3일 강서구 소재 방화초등학교 학생 22명을 초청해 정비 격납고 시설을 소개하고 항공 정비 업무와 항공기 기종별 특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다양한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했다. /대한항공



LG U+, '툼byU+' iF 디자인 어워드 2관왕

LG유플러스의 MZ 취향 커뮤니티 '일상비밀상툼byU+'가 디지털 고객경험 혁신사례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2관왕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김다림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왼쪽에서 세번째)'과 일상비밀상툼팀원들이 'iF 디자인 어워드 2023' 2관왕 기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LG유플러스



쿠팡 뷰티본부, 한강 일대서 플로깅 행사

쿠팡은 뷰티본부 직원들이 지난 19일 한강 일대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공익활동 목적으로 플로깅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쿠팡 뷰티 본부 직원들은 잠원한강공원 및 한남대교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쿠팡



JW중의제약,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스폰서십

JW중의제약이 프로배구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와 2023-2024시즌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경택 JW중의제약 OTC사업본부장(왼쪽)과 이교창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 단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JW중의제약

대학 찾은 정의선... “인재, 자질·능력 발휘 도울 것”

(현대차그룹 회장)

연세대 경영학과 토론 강의의 참관 현대차그룹 비전 등 100분 토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연세대 대학교를 찾아 경영학과 학생들의 토론 강의를 참관했다.

24일 연세대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 11일 연세대 경영대 이무원 교수의 수업에 참여했다. 이날 강의는 현대차그룹과 정의선 회장의 파괴적 게임 체인저 비전과 혁신을 심층 분석한 사례 연구(Case Study)인 ‘현대차그룹 : 패스트 팔로어에서 게임 체인저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서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들은 게임 체인저 비전 아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기 위한 현대차그룹의 혁신에 주목하면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조화순 기아 사외이사(연세대 교수), 이무원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등 연세대 경영학과 학생들이 지난 11일 '조직학습 : 기획와 함정' 토론 강의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의 신사업, 비전, 경영 성과, 기업 문화, 도전 과제 등에 대해 100분여 동안 토론을 펼쳤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그룹의 혁신 전략에 대한 학생들의 열띤 토론과 다양한 평가 및 분석을 경청했다. 강의에는 송호성 기아 사장, 김

흥수 현대차그룹 부사장, 조화순 기아 사외이사(연세대 교수)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정의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현대차그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놀랍고 고맙다”며 “현대차그룹이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해야

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그룹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싶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세상이 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평소 추구하는 기업의 역할을 설명했다. 또 “여러분이 가진 자질과 능력을 잘 살려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더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강의가 끝난 뒤에도 학생들, 현대차그룹 임원진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며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포스코인터, 신안서 ‘친환경에너지·지역상생’ 꽃 피워

박우량 신안군수 감사패 전달 “해상풍력발전 사업 적극 진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풍력과 태양광 사업의 거점인 전남 신안에서 사회공헌에 앞장서며 ‘친환경에너지’와 ‘지역상생’을 모두 꽃피우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운영하는 육상풍력전문기업인 신안그린에너지는 최근 신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박우량 신안군수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신안그린에너지는 이번 달 새롭게 준공한 다목적 마을회관에 총 8억원의 기금을 지원했다. 다목적 마을회관은 250석 규모의 공연장과 카



신안그린에너지 육상풍력단지 전경

페, 식당 등을 포함한 신안 지역 최대 규모의 주민 지원 시설이다.

신안그린에너지는 회사가 상업 발전을 시작한 2017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매출액의 1.5%를 신안군의 발전 기금으로 지원하며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특히 풍력발전소가 있는 자은면에서 노인의 날 행사, 독거노인을 위한 김장봉사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며 지역주민 화합에 앞장서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전남 신안을 주요 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우수한 풍황(風況·바람의 현황) 자원을 보유한 것으로 유명한 신안군 자은면 일대에 20기의 풍력 발전기를 설치, 총 발전용량 62.7MW의 육상풍력단지를 조성해 2016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생산 전력은 신안과 목포 권역의 3만 1000세대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연간 5만 1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저감한 효과다. 이는 소나무 1400만 그루를 새롭게 심은 것과 같다.

이와 함께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인근 팔금면의 폐염전 부지를 활용해 14.5MW의 태양광 발전 단지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폐염전 부지는 평평하고 단단한 지형적 특성 때문에 태양광 발전 구조물을 설치한 후에도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으로서 해상풍력발전 사업에도 적극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비맥주 맥주 제조·판매과정 업사이클링

부산물·폐기물, 패션 소재 활용

오비맥주가 맥주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 포장 패키지 등을 패션 소재로 활용한다.

오비맥주는 23일 서울 강남구 오비맥주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 오비맥주 구자범 법무정책홍보부본부 수석부사장과 서울패션허브 배움뜰 김신우 센터장, 한국패션디자인학회 회장 서울대 하지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업사이클링 패션쇼·

전시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서울패션허브, 한국패션디자인학회와 함께 ‘Passion for Beer, Fashion for Beer (맥주에 대한 열정, 맥주를 위한 패션)’이란 타이틀로 이색적인 산학협력 사업을 전개한다. 맥주의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폐기물, 포장 패키지 등을 패션의 소재로 업사이클링하고 결과물을 9월 패션쇼와 전시로 동시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롯데렌탈, 방한 외국인 대상 렌터카 할인

롯데렌탈이 K-관광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렌터카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렌탈은 ‘2023~2024 한국방문의 해’를 기념해 K-관광 협력단에 참여하고 방한 외국인의 편리한 렌터카 이동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2024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를 통해 전남 한국방문의 해 K-관광 협력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롯데렌탈은 K-관광 협력단 참여 기업 중 유일한 렌터카 업체로 롯데렌터카를 통해 관광 기관 및 연계 협력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외래 방문객의 교통 서비스 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한솔그룹 ‘뮤지엄산’ 쇼츠 100만뷰 돌파

한솔그룹이 자사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뮤지엄산(SAN) 관련 사회공헌 Shorts 영상이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유튜브 영상은 큰 조회수를 기록하기 어렵지만

해당 Shorts 영상은 한솔그룹의 폐쇄나 활동에 대한 간결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뮤지엄산이 가진 빼어난 경관의 영상미를 통해 유튜브 사용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통계청** ◇과장급 △통계정책과장 이민경 △혁신행정담당관 김현기

◆**아시아타임즈** △편집국 부국장 김종길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항공안전정책관 류경수

부음

▲ **왕경령씨 별세**, 왕육혜(호유 대표)·왕육성(진진 대표)·왕련생(신태창여행사 대표)씨 모친상 = 24일 0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26일 오전 6시 20분. 02-2227-7590

▲ **이경자씨 별세**, 박주만(전 이베이 인터내셔널 대표이사)씨 모친상 = 24일,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3호실, 발인 26일 오전 5시 30분. 02-3010-2000

기저효과로 인한 집값 바닥론



이수준의 부동산 수첩

최근 서울 아파트 값의 하락 폭이 축소되고, 1년 반 만에 매매 거래량도 최고로 늘었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계를 두고 차츰 집값 바닥론을 제시하는 전문가들도 늘고 있다. 그러나 하락 폭이 축소했다는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는 이전까지 많이 하락하다가 지금은 적게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여전히 하락은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의 6~7년 동안 부인할 수 없는 하락기를 가졌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도 국지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집값이 반등을 했다는 뉴스는 많이 볼 수 있었다. 결국 그 수많은 반등과 하락점들이 모여서 수년간의 긴 하락기가 이루어졌던 셈이다. 따라서 현재의 금리, 장기적인 공급 계획 등을 고려하면 지금을 여전히 긴 침체기의 한 부분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가격의 오르내림을 떠나,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중요

하다. 다수 언론에서는 최근 거래량이 반등했다고 전한다. 흔히 1년 만에 혹은 1년 4개월 만에 최고의 거래량 기록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비교대상인 2022년 초반은 그야말로 거래절벽이었던 시기이다. 제대로 비교를 하려면 그 이전에 거래량이 충분했던 시절과 비교해야 한다.

현재의 거래량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인다고 보기에선 여전히 부족하다. 이렇게 특정 목적에 따라 비교시점을 달리해서 그 설득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기저효과라고 한다.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2023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이전 전세가격보다 낮은 보증금에 신규계약한 사례는 3만건을 돌파했다. 그 중 절반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 수치에는 떨어진 전세시세에 맞춰 임대인이 현재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돌려주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케이스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은 것이다. 통계상의 한국 전세가구수 약 300만 중 매월의 계약 건수를 7만~8만건으로 추산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각 지역별 전세보증금의 시세를 나타내는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에 비해 10%이

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하락율이 큰 곳은 세종시와 대구이며 그 하락율은 2년전 대비 25% 이상이다. 즉, 지금은 집값도 하락했지만 전세가격은 그보다 더 하락했다.

집값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세가격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수순이다. 그 래야 전세 수요자들이 내집 마련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고,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도 함께 상승한다.

집값은 상승시장일때도 그렇지만 조정기에는 더욱 지역별 편차가 크다. 따라서 시장 전체가 반등이나 추가하락이냐의 논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지금도 전세시세의 하락 현상은 강남3구에서 가장 심하지만 동시에 부분적 시세반등도 강남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강남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자들은 매입능력도, 집주인들의 보증금 상황능력도 뛰어난 만큼 전체 시장의 지표로 보기에선 정확하지 않다. 그러나 다른 지역들은 전세 시장을 바탕으로 시장의 동향을 어느 정도 내다 볼 수 있다.

전세를 얻든 집을 사든 결국 똑같은 주택 수요자들이다. 지금이 그들에겐 어떤 행위를 하기에 좋은 환경인지 살펴보자.

/로이에아시아컨설팅 대표

주가조작에 희생되는 개미들, 책임은 누가?



기지수첩 신하은 (자본시장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로 인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통곡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오픈 카카오톡방에서 5억 원쯤의 빛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지만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된 개미들의 가슴은 여전히 막막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초 일부 종목에서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파악했음에도 미적지근한 대응으로 사태를 방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금 더 신속했다라면 ‘꿀꿀’에 들어간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정부는 ‘증권범죄 대응 강

화’가 국정과제임에도 ‘소 잃고 외양간 고 치기’에 그치게 됐다.

이번 사태의 근원지로 꼽히는 차액결제 거래(CFD) 위험성은 업계에서 계속 언급돼 왔다. 2019년 11월 금융 당국은 개인전 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면서 리스크가 상당한 CFD의 진입 장벽이 무너진 것이다.

증권가 책임론이 함께 불거지는 이유도 CFD에 대한 허술함이다. CFD 시장이 확대되고 있을 때, CFD 거래에 필요한 조건인 전문투자자 등록절차는 너무나 손쉬웠다. SG증권 창구로 쏟아진 CFD 물량의 상당수를 출회한 키움증권은 HTS·MTS을 통해 등록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게다가 해당 증권사의 대표는 주가 폭락이 발생하기 불과 일주일도 전에 Dau 데이터 140만 주를 605억

원에 매도했다. 김영민 서울시가스 회장도, 대성홀딩스의 최대주주였던 김영민 회장의 동생 김영훈 회장까지 대주주들의 이례적인 대량 매각이 하필 이 시점에 진행됐다.

하지만 투자 시장의 혼란을 발생시키는 증권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너무나 가볍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태의 경우 ‘실제한 시세조종’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경제사범 단속은 개인이 아닌 사회의 몫이다. 건전한 자본시장을 추구한다면 개인의 ‘선택’이 아닌 타인의 ‘조작’으로 인한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법조계에서는 SG발 주가폭락 사태로 손실을 입은 개인 투자자들의 ‘희생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미들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강화와 구체화된 안전망 구축이 요구된다.

/godh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25일 (음 4월 6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커피 한 잔이 여유를 준다. **48년생** 보통 있는 일에 시시비비 가지지 말 것. **60년생** 파란 하늘이 그립고 비벌 언덕이 필요한 날. **72년생** 자신이 옳다고 믿어도 기다려보자. **84년생** 우는 아이는 젖을 뱉더라도 달려보라.
- 37년생** 받았으면 자신도 베풀어라. **49년생**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한그루 사과나무를 심자. **61년생** 상대의 실수를 덮어 주면 보답을 받는다. **73년생** 가족으로 인해 곤경에 빠진다. **85년생** 괴로운 시련처럼 보이나 뜻밖의 좋은 일.
- 38년생** 집 나간 말이 새 식구를 일러서 돌아오니 이득이 많다. **50년생** 비단옷 입고 밤길을 돌아다니는 격. **62년생** 의견통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맡아라. **74년생** 휴대전화 교환을 고려. **86년생** 건강이 열려되니 음주는 주의하라.
- 39년생** 포기하면 마음은 편하다. **51년생** 동분서주해봐야 이익이 별로 없다. **63년생** 지혜가 부족해도 근면 성실로 극복. **75년생** 물건을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87년생** 부동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일을 추진.
- 40년생**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상대에게 고통. **52년생** 삼재이니 이혼 위기를 극복하라. **64년생** 정치적인 인쟁에 휘말리면 본전 찾기 힘들다. **76년생** 새 술은 새 부대에. **88년생** 익숙한 일도 가법게 보지 말라.
- 41년생** 언제나 진리의 길은 가까운 데 있다. **53년생** 내가 좋다고 남들도 다 좋은 건 아니다. **65년생** 삶의 질은 나의 선택으로 결정된다. **77년생** 허랑가짜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범피다 남배. **89년생** 겸손하게 하루를 보내라.
- 42년생** 머리는 아프고 몸도 피곤. **54년생** 마음은 표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66년생** 한발 물러서서 양보해라. **78년생** 여름이 갔으니 부채는 제 역할을 다한 것. **90년생** 모래 위에 세운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간다.
- 43년생** 두려움이 기도를 거치면 용기가 된다. **55년생** 칠썩같이 캄캄해도 곧 새벽이 오겠다. **67년생** 매력적인 이성의 유혹이 있는 날이니 중심을 잘 잡자. **79년생** 진인사대천명이니 최선을 다하라. **91년생** 작은 손해에 신경 쓰기보다는.
- 44년생** 자존감이 지나치면 주변을 힘들게 한다. **56년생**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니 착하게 살아. **68년생** 기다리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온다. **80년생** 백만송이 장미가 깔린 길을 걷는 기분. **92년생** 순리대로 흐르는 것은 흘러가게 뒀아.
- 45년생** 말보다는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에 초점을. **57년생** 싸워서 이길 상대가 아니니 피하는 게 상책. **69년생** 명석이 깔렸으니 최선을 다해서 미뤄둔 일을 마무리. **81년생** 실수도 하지 않도록 점검. **93년생**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다.
- 46년생** 도움을 줬던 사람이 은혜를 갚으러 온다. **58년생** 인생은 새옹지마이니 좋은 일이 올 것이다. **70년생** 서류를 제출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 **82년생** 너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다. **94년생** 신경질적 반응이 본인 일에 방해된다.
- 47년생** 걱정했던 것보다 일이 잘 풀린다. **59년생** 마음은 충훈이나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71년생** 지혜가 생기고 영연도 잘된다. **83년생** 절이 싫으면 종이 떼야하니 잔재주부리지마라. **95년생** 백절불굴(百折不屈)하여 여기까지 왔는데.

김상희의四季 어떤 기도

기독교나 천주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유일신 개념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앙이기에 숭앙의 대상이 확정적이다. 그러나 힌두교는 만물이 다 신이라는 범신론인데다가 불교의 경우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계시니 어떤 면에서 잠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실제 많은 불자들이 어느 불보살께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요 묻기도 한다. 특히 율해처럼 윤달이 드는 해에는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까지 지내는 터라 웬만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기도리스트가 추가되기도 했다.

우리 주변의 세상의 선한 우주의 기운은 서로 함께 돌아가는 것이어서 두부모 자르듯이 구별되지 않는다. 앞 파도는 뒷 파도의 힘을 받아 계속 물결치고 일렁이며 모래 틈을 쌓고 절벽을 깎듯이 인드라망이라 하여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고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에너지파동을 전달하며 주고받는 것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기도해서 풀리지 않는 일이 없다면 기도해서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좀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노력을 통해 목적을 성취해야지 그저 기도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면 그건 요행을 바라는 것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며. 맞는 말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처절하게 기도를 해보시라.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몸과 마음을 정하게 하고 삼일 칠일 삼칠일 백일.. 이렇게 정성껏 발원을 세워 기도를 하다보면 참회와 더불어 마음의 질이 높아진다. 순일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변의 기운들이 돕는다. 어느 기운은 관세음보살의 에너지요, 어떤 기운은 지혜를 갖춘 문수보살의 파장이 임한다. 에너지에는 좋은 기운도 있고 부정적인 기운도 있다. 겸손한 마음에는 긍정에너지가 생긴다. 기도는 요행이 아니다. 이를 알려 불보살님들이 가피하셨다고 이름 할 뿐이다.

‘김상희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19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0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문제출제: 손호성 **생각하는힘**

문제풀이방법
 4X3 스도쿠는 가로,세로,4X3박스내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동호 스도쿠는 가로,세로,3X3박스내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하루에 한 장 가격의 두뇌퍼즐 **사무라이스도쿠**
 손호성 저 | 스도쿠66 | 10,000원

		6		4		8						
5				8		3						6
		1		3		9						
8				9	5	1						2
		9			7			3				
2				6		5						9
		8			2			5				

						3	2	1				
		4										8
				7		8						
9		6							5			1
7												6
8		1									3	4
						5		7				
		7										1
				2	9	6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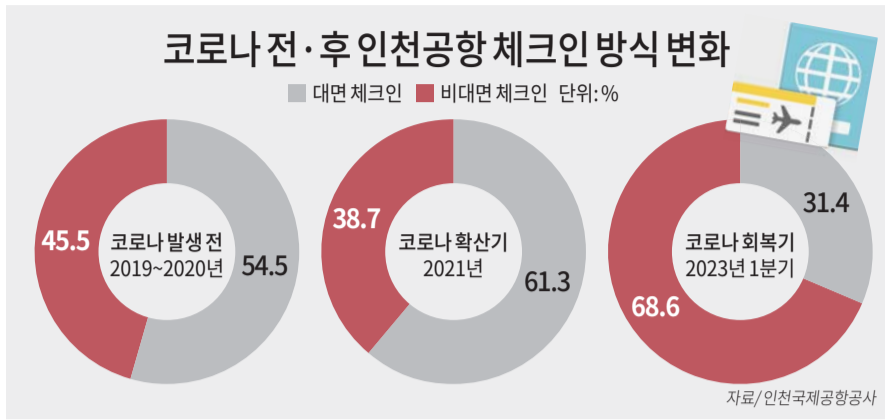
인천공항, 셀프 체크인·백드랍 ‘비대면 서비스’ 23.1% ↑

코로나19가 바꾼 공항 풍경

출국 목적 ‘관광·휴양’ 다시 1위 가족·친지와 동반출국 비율 높아

올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 승객 10명 중 7명은 ‘관광·휴양’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 여객 수요 회복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이용객 다수는 셀프체크인, 셀프백드랍 등 비대면 서비스를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출국객과 환승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공항 이용여객 행동특성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인천공항 이용여객의 출국 목적, 여행 유형, 동반자 유형 등의 여행특성과 공항내 체크인·면세점 등의 시설·서비스



이용행태를 담았다.

항공여객은 코로나19발생 이전과 비교할 때 인천공항에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선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공항에서는 항공사 체크인카운터를 통한 대면발권방식이 아닌 ‘셀프체크인(웹·모바일·키오스크)’, ‘셀프백드랍’ 등 비대면 탑승수속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 비대면 서비스 이용률이 코로나19 발생 전 대비 23.1%p 증가한 68.6%로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기간 중 사회 전반에 급격히 확산된 비대면 서비스가 공항 수속에서도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출국 목적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기

인 2021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친지방문’(33.7%)을 제치고, 코로나19 발생 전과 같이 ‘관광·휴양’(71.4%)이 다시 1위를 차지했다. 출국 동반자는 코로나19 기간 중 대체를 차지하던 ‘나홀로’출국(67.4%)을 제치고 다시 ‘가족·친지’와의 동반 출국 비율(44.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여행의 선호도가 더욱 강화된 것도 특징적이다. 코로나19 발생 전에 비해 9.3%p 상승한 84.3%의 항공여객이 개별여행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면세점 및 음식점 등 공항시설 이용률은 코로나19 확산기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지역 시설 이용률은 26.7%에서 53.6%로, 출국장지역은 53.0%에서 63.2%로 증가하는 등 공항이용 행태가 정상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된

다. 공사는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항공수요 회복기를 맞아 공항 운영 안정화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3월말부터 ‘수요회복기 공항운영 정상화 비상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며, 면세점 및 식음·서비스 매장 운영을 확대해 여객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희정 사장직무대행은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여객들의 니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공항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방역규제가 세계적으로 완화되던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1635명의 인천공항 이용 여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뢰수준은 97%에 표본오차는 ±2.7%p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무협, 식품·뷰티 등 계약추진 148억 성과

‘한-대만 수출입 상담회’ 참가 정만기 부회장 “양측 소비재 교역 확대 가능”



한국무역협회(KITA)는 23일(현지시각)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TICC)에서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대만 상업총회와 공동으로 ‘한-대만 수출입 상담회’를 개최했다. /무역협회 제공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3일(현지시각) 대만 타이베이 국제컨벤션센터(TICC)에서 열린 ‘한-대만 수출입 상담회’에서 상담액 3282만 달러(약 433억 원), 계약 추진액 1123만달러(148억 원), 현장 계약 체결액 1만8000달러(2300만원) 성과를 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무협과 대만 대외무역발전협회(TAITRA), 대만 상업총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상담회에는 한국 수출입 기업 27개사, 대만 수출입 기업 95개사 등 총 122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207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상담회는 뷰티, 식품, 생활용품 등 소비재를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상담회 참석 한국 기업인들은 무협이 현지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코로나로 중단됐던 대면 상담이 재개되면서 앞으로 소비재를 중심으로 대만 진출이 확대될 수 있

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장품 제조, 판매업체 A사 대표는 “대만 시장의 높은 가능성을 보고 상담회 참여를 결정했으나, 현지 시장과 산업 정보가 부족했다”며 사업 참가 이전에 현지 시장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고데기 제조업체 B사 대표는 “자녀 조연에 따라 애완동물용 고데기를 만들었는데 대만에서 반응이 매우

좋아 늘랐다”며 “대만은 가까운 시장인 만큼 바이어를 잘 관리한다면 계약 성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식품 서비스 업체 C사 대표는 “진성 바이어 탐색 비용과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어 매우 효율적”이라며 “다만, 짧은 출장 일정으로 하루에 많은 바이어를 만나다 보니 상담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상담회 기간을 늘려 줄 것을 제안했다. 주방용품 제조업체 D사 대표는 “대기업들은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수출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어려운 일”이라며 “전문 무역상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무협 정만기 부회장은 “한국의 종교·역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이지만 한국과 대만 간 소비재 교역 비중은 3.1%에 불과하다”며 “한-대만 양측 소비재 소득이나 소비 성향이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양측의 소비재 교역 확대는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고용부, 여성고용 ‘미충족’ 43개사 공개

여성고용 비중 낮고 개선의지 부족

여성고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개선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 43개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 43개 기업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하고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3년 연속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는 등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사업주의 실질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기업들 명단이다.

해당 명단에는 직원 1000인 이상 12개사와 1000인 미만 31개사가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7개사(16.28%)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광물·금속가공기계 등)이 6개사(13.95%)로 뒤를 이었다.

명단에 이름을 올린 대기업계열사 SK네트웍스의 경우 전체근로자 734명

중 여성근로자 수가 50명(6.81%)에 그쳤다. 정부가 제시한 여성고용기준율(12.55%) 한참 못미친다. 이 기업의 여성관리자 수는 0명이었다.

또 단양관광공사와 영양고추유통공사 등의 지방공사도 43개사에 포함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690개사(공공기관 350, 지방공사·공단 159, 민간기업 2181)가 적용대상이다.

지난 2006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이 시행 원년 30.77%와 10.22%에 머물다 2022년 기준 각각 38.05%와 21.75%로 늘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가루쌀빵·맥주·과자 등 ‘쌀가공식품’ 만난다

최신 제품·시장 동향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2023년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쌀가공식품 산업대전은 우수 쌀가공식품기업과 제품을 국내외 유통업체, 바이어에게 소개하고, 쌀가공식품 시장 확대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해 올해 13년 차를 맞는다.

이번 행사에서는 ‘쌀 가공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발굴·육성하여 케이·푸드(K-Food) 시장의 혁신적인 확대를 이끌어간다’를 주제로 총 52개 쌀가공식품업체가 참가, 2022년에 선정된 쌀가공식품 상위 10개 제품을 비롯한 최신 제품과 시장 동향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에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루쌀’을 활용한 다양한 쌀가공품이 전시된다. 관람객들은 ‘동네빵집 가루쌀빵 신메뉴 품평회’에서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20개의 가루쌀빵과 함께 가루쌀 맥주도 맛볼 수 있다. 또한 가루쌀 제분 시연, 가루쌀빵 쿠키쇼, 가루쌀 과자 경품 추첨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다. /차상근 기자 skc8472@

“외래 흰개미, 최소 5년 전 유입 추정”

지난 17일 서울 강남의 한 주택에서 발견된 흰개미는 이미 5년 전부터 국내에 유입된 외래종 흰개미의 개체군인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등 정부합동 역학조사단은 24일 “이번에 발견된 외래 흰개미는 마른나무흰개미(cryptotermes domesticus)”라며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년 전 건물 건축 당시 흰개미에 감염된 목재 건축자재 또는 가구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따뜻한 실내에서 생존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지난 22~23일 해당 세대와 인근 세대 및 주변 지역에 대해 합동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며 “해당 세대에서 최초 신고된 94마리 외에 서식지로 확인된 실내 문틀에서 여왕흰개미 등 생식 개체 총 159마리를 박멸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경찰, ‘박지원·서훈 채용비리’ 자택·국정원 압색 /사진 뉴스스
- ▲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 ▲ 노동계,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환영... “노동권 보장 기대” /사진 뉴스스
- ▲ 의대정원 문제로 번진 ‘PA간호사’ 논란... “의사 수 늘려야”



- ▲ 서울경찰청 경무관 숨진채 발견... 극단선택 추정
- ▲ 고객 4천여명 정보 새나간 티맵모빌리티에 과징금 5200만원



K-제약
비알코올성지방간염
치료제 개발 '순향'
04



Life

작품 감상·골프체험
백화점
문화공간으로
N1



어디든 5분만 걸으면 정원이... 서울, 녹색빛으로 물들인다

6800억 투입, '정원도시 서울' 추진
비움, 연결, 생태, 감성 4가지 키워드
도심 숨통 틔우는 '열린공원' 조성
녹지길 코스, 수변 여가공간 마련도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원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원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원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원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요해졌다"며 "그래서 선진국형 녹지
공간, 정원을 만든다는 개념을 도입했
다"고 강조했다.

시는 비움, 연결, 생태, 감성이라는 4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원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우선 시는 도심 한가운데를 비워내

도시의 숨통을 틔우는 열린 정원을 만
들어 나가기로 했다. 송현동 부지에는
이건희미술관 외 그 어떤 시설물도 들
어올 수 없게 해 2만6604㎡ 크기의 땅을
문화공원으로 보존한다. 미군이 떠나
비워진 용산공원의 242만6748㎡ 규모
공간은 다양한 나라의 대표 정원을 선

보이는 '세계정원'으로 조성해 도심 속
관광명소로 육성한다. 국회대로, 영동
대로, 경부고속도로 입체화 구간은 기
존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공원을
가꾸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한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의 둘레길과 시
내 산자락길, 하천길, 골목을 촘촘히 이
어 녹지가 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시
내 전체를 녹색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
도 밝혔다.

먼저 시는 세운상가를 허문 지역에
폭 50~70m의 선형녹지공원을 만들어
중도 앞부터 남산까지를 녹지길로 잇기
로 했다. 오 시장은 "세운상가 인근 지
역과 결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
진할 것"이라며 "높이 제한을 없애주는
대신 공공기여를 받아 시 재정을 투입
하지 않고 녹색길을 조성하겠다"고 설
명했다.

시는 초록길 286.6km를 신설해 2026
년까지 총 길이 2063.4km의 녹지길을 완

성할 예정이다. 서울둘레길은 코스를
확대하고 스카이라인, 테크, 전망대, 휴
식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업그레이
드한다.

이와 함께 시는 산과 하천, 지천변을
이용한 생태정원을 조성한다. 남산에는
전국 팔도의 대표 수종을 이식해 '야외
숲 박물관'을 짓는다. 안양천, 중랑천을
포함 17개 하천구역에는 수목과 초화류
를 심어 수변 여가공간을 마련한다.

서울의 감성과 문화를 담아낸 계절별
화초정원 가꾸기에도 팔을 걷어붙인
다. 권역별 거점공간에는 대규모 특화
정원 6개가 생긴다. 하늘정원에는 계절
꽃, 창포원에는 붓꽃과 창포를 테마로
한 '주제정원'을 설치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수시 논술전형, 대학별 논제 유형 파악해야” 서울컨트리클럽, 골프 유망주에 장학금 전달

인문, 사회교과 연계 지문 언어논술
자연, 수리·과학 모두 치르는 대학도

2024학년도에는 전국 대학에서 수시
모집 인원 34만62명 중 1만1161명을 논
술전형으로 선발한다. 논술전형은 전체
수시 인원의 3.28%에 불과하지만, 수
도권 주요 대학들과 부산대, 경북대 등
지역거점 국립대학에서 실시하고 있
고, 내신 성적이 비교적 낮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으로 꼽힌다.

인문계열 논술은 주로 언어(인문)논
술 형태를 취하며 몇 개 지문을 읽고 요
약, 비교, 평가하거나 특정 주장을 지
지·비판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지
문 주제는 사회교과와 연계되는데 주로
통합사회, 생활과 윤리의 개념이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해당 과목에 대한 이
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면 조금 더 수

월하게 풀이해 낼 수 있다.

모집단위나 대학에 따라서 도표나 그
래프를 지문에 포함해 이를 해석하고
추론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이
런 유형은 사회문화 과목을 충실히 공
부하는 것으로 대비할 수 있다.

상경제열은 조금 더 수리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하기도 한다. 건국
대, 경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는 수학 I, II와 확률과 통계의 개
념을 활용한 수리논술 문항을 포함한다.
이 중 연세대만 인문계열 전 모집단
위에서 수리논술 문항을 포함한다.

자연계열 논술은 수리논술만 치르는
대학, 과학논술만 치르는 대학, 두 가지
모두를 치르는 대학으로 나뉘며 대부분
수리논술만을 치른다. 수리논술과 과학
논술을 함께 치르는 대학 중에서도 경희
대, 아주대, 연세대(미래)는 의약학관련

모집단위에서만 과학논술을 함께 치르
며, 연세대는 자연계열 전 모집단위에서
과학논술을 치르지만 2025학년도부터
는 과학논술을 없애고 수리논술만 치를
예정이다. 수리논술도 고등학교 과정을
벗어난 개념을 출제되지 않는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전개를 통해 답
안을 서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우연
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평소
문제 풀이를 하면서 수학 공식을 증명
으로 유도해 보거나 수능 문제를 풀이
하면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뉘 풀이
과정을 적는 연습을 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소장은 “논술은 경쟁률이 높아 합
격 가능성이 낮은 전형으로 꼽히지만,
대학의 출제의도, 요구하는 답안 작성
방법을 잘 안다면 합격 가능성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ihj@

여의도 용적률 1200%... 높이 규제 폐지

금융중심지 내 초고층 건립 가능해져

서울시가 여의도 금융중심지 내 혁신
디자인 건축물에 용적률을 1200% 이상
완화한다. 높이 350m 이상의 초고층 건
물 건립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
위계획안'을 수립해 25일부터 열람 공
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
는 동여의도 일대 112만586㎡ 규모 부
지다. 계획안은 동여의도 부지 용도지
역 상향,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높이

완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시는 국제금융중심지구 내 금융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용도지역 조정 가
능지로 지정해 '일반상업지역'에서 '중
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을 1000%까지 부
여하고 친환경, 창의·혁신디자인을 적
용할 경우 1200% 이상 완화한다.

/김현정 기자

중·고등학생 8명 선발, 훈련 등 지원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사단법인 서
울컨트리클럽(이사장 조갑주)이 지난 5
월 20일 골프 유망주들을 지원하기 위
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은 한국 최
초로 설립되어 우리나라 골프 보급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골프 대중화
에 기여해 왔다. 금번 장학선발은 클럽
정관의 목적사업인 골프의 보급·발
전 및 교육사업의 일환으로 골프선수
를 꿈꾸는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
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교육 체계적으로

훈련에 집중하고 인성을 갖춘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대한민국
골프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시행
한 사업이다.

장학생 모집 공고를 게시하여 지원한
학생 중 서류전형과 인터뷰를 통해 중,
고등부 학생 8명이 최종 선발되었다.

장학생에게는 장학금 1000만원, 한
양파인CC 연습장 1년 이용권, 서울·한
양CC 회원제 정규홀 9홀 라운드 이용
권을 부상으로 지급하여 물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골프 기량을 지
속적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할 예정이다. /고양(경기)=안성기 기자 ask999@

Weather forecast for Seoul, May 25th (Monday). High 25°C, Low 15°C. Includes a map of Korea showing weather across various regions like Incheon, Seoul, and Gyeonggi.



▲SSG 선발진 '마지막 퍼즐' 될까...엘
리아스, LG전서 데뷔
▲배지환, 나흘만에 멀티히트...주루에
선 아쉬움 /사진 뉴스1

▲롯데 "토티넘 새 사령탑에 슬롯 페
예노르트 감독 유력"
▲테니스 백다연, 빌리진킹컵 하트 어워드
수상...한국 선수 최초



▲류현진, 수술 후 첫 불펜투구...“마운
드가 그리웠다” /사진 뉴스1
▲‘더블 겨냥’ 울산·‘최다 우승’ 전북·수
원...오늘 FA컵 16강



World EXPO 2030
BUSAN, KOREA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LG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지구의 푸른 미래, LG의 클린테크로 켜다

탄소배출을 줄이는 기술부터 다 쓴 자원을 재탄생시키는 기술까지
LG의 클린테크가 다음 세대를 위한 깨끗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미래, 같이

다 같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미래가치** 만들기,
LG가 **함께** 하겠습니다.

